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송미령전

《宋美齡大傳》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學科

白賢珍

2015年 7月

송미령 전

宋美齡大傳- 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宋 咳 宣

白 賢 珍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 年 7 月

白賢珍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成植



委 員

金中燮



委 員

宋咳宣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5 年 7 月

<목차>

제1장 '미국의 딸'	1
1. 서구화된 사고를 가진 아버지 송요여	1
1) 미국신학교 졸업생	2
2) 선교사, 거상, 혁명가	9
3) 진보적인 아버지	16
2. 천진난만하고 활발했던 소녀 시절	20
1) 장난기 가득한 작은 여자아이	20
2) 10살이 채 되지 않아 미국 유학을 떠나다.	25
3) 미국 남부에서의 성장	28
3. 체계적인 서양교육을 받다.	33
1) 웰즐리여자대학교의 졸업생	34
2) 중국 곳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다.	39
3) 아버지와의 고별	43
제2장 '영웅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다.	45
1. 떠나 먼 구애의 길	45
1) 낭만적인 미국에서의 연애	46
2) '강한 인물'의 남편을 찾다.	48
3) 미녀를 쫓는 영웅의 '마라톤'	52
2. 처와 첩과 이혼, 그리고 미령과의 혼인	58
1) 집을 떠나지 않는 모복매의 이혼	58
2) 첩 요야성과의 이혼	63
3) 진결여의 출국	67

제1장

'미국의 딸'

송미령의 부친 송요여는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서양식 아버지였다. 고국으로 돌아와 처음에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사업으로 부를 이루게 되었고, 손중산(孫中山)혁명의 중요 경제적 지원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의 지극한 정성으로 여섯 명 중 네 명의 자녀가 20세기 중국 정치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송미령은 1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두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활발하고 명랑했던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과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 유년 시절부터 청춘 시절의 중요한 10년을 즐겁게 보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의 모든 과정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되었다.

체계화된 미국식 교육을 통해 송미령의 생활 습관, 말투,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모두 미국화 되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난 얼굴만 동양인이야'라고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송미령은 미국인처럼 자란 '미국의 딸'이었다.

1. 서구화된 사고를 가진 아버지 송요여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송요여는 어린 시절 해외로 나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10여 년 동안 서양식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귀국 후 송요여는 선교사에서 거장으로 그리고 혁명가가 되었고, 신식 교육관을 가진 진보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모두 훌륭한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송 씨 가문의 기틀을 세우는 일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

다.

1) 미국 신학교 졸업생

송미령의 형제자매는 모두 여섯이며 언니 애령(靄齡)과 경령(慶齡), 오빠 자문(子文)과 남동생 자량(子良)과 자안(子安)이 있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가문은 이미 상하이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신흥 상류층이었다. 수십 년 후, 그들은 권력과 재력 그리고 매력을 모두 갖춘 20세기 전반 중국 최대의 전설을 갖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송가왕조가 되었다. 아버지 송요여를 중심으로 송씨 가문의 지위와 명예가 기틀을 잡게 되었다.

송요여의 또 다른 이름은 찰리 송 가브리엘슨 (Charles vones soony, 1866~1918년)으로 중국 근대사에서 많은 일화가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성년이 된 이후에도 선교사, 기업가, 자산계급혁명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송 씨 가문의 가장으로서 개척자와 모험가의 정신으로 송씨 3자매와 3형제를 길렀고, 그의 자녀들은 20세기 중국역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송요여의 인생은 매우 험난했고 고됐으며, 또한 근면했고 용감하게 분투하는 삶이었다. 송요여의 성은 본래 송 씨가 아닌 한 씨였고, 이름은 한교준(韓敎準)이었다. 한 씨 집안은 하남 상주(河南 相州)의 안양(安陽)에 살았으며 남송(南宋)시기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해남도(海南島)로 이진해 오면서 문창 금산(文昌 錦山)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손들은 청대에 라두시(羅荳市) 이오파(垵烏坡)촌에 거주하였다가 이후에는 창쇄구(昌洒區) 고로원(古路園) 마을로 이주하였다.

송요여 즉 한교준이 태어났을 때, 한 씨 집안의 경제사정이 이전보다 좋지 못하여 점점 빈곤해져 갔다. 그의 아버지 한홍익(韓鴻翼)은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존칭했다. 송요여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는 오로지 4묘(중국식 토지 면적의 단위로 약 2700제곱평방미터)의 척박한 모래땅뿐이었다.

문창(文昌) 금산(錦山)에서는 야자가 많이 열렸지만, 그들의 토지에서는 야자수가 잘 자라지 않았다. 한홍익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업을 해야만 했다. 그는 다른 농가의 야자를 운반해 주기 위해 뿔대를 지고 꼬

불끄불하게 나 있는 긴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해변까지 갔다. 때로는 배를 타고 더 먼 곳까지 가기도 했다. 그는 새끼줄을 엮어 팔거나 기와를 굽기도 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거의 다 한 셈이었다.

가난은 한교준으로 하여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모험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러한 그의 개척정신 때문에, 20세기 중국역사에 이름을 떨칠 인재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1872년 여름, 한교준과 그의 형 한정준(韓政準)은 고향을 떠나 바다 건너 멀리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사는 친척에게로 가, 그곳에서 일을 배우며 매우 평범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1875년 송가 출신의 당외삼촌이 중국으로 귀국하여 친척들을 만난 후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도중 잠시 자바 섬을 경유하게 되었다.

한교준과 당외삼촌은 매우 잘 통하였다. 한교준은 당외삼촌의 성공담,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 철도부설 광둥(廣東)이민지에서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비단과 차를 파는 상점의 사장이 되는 과정을 듣게 되었다. 슬하에 자녀가 없었던 그는 총명하고 영리한 교준을 매우 좋아했다. 부모의 동의하에 정식으로 교준을 양자로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미국대륙으로 향하였다. 그때부터 한교준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하여 얻은 이름이 송요여(宋耀如)이며, 때로는 송가수(宋嘉樹)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보스턴으로 가는 도중 송요여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출발에 임박하였을 때 일망무제의 대양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여정에 앞서 양아버지는 송요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아들아, 앞으로의 날들은 이 큰 바다의 파도와도 같이, 또 넓은 하늘의 구름과도 같이 도처에 어려움이 놓여 있고, 늘 위험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기억해라.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 일에 임하면, 슬픔이 행운으로 바뀌어 복이 될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미국 동부나 카리브해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페루나 칠레해역을 거쳐 라틴아메리카 남단의 마젤란해협이나 혼곶을 지나 남대서양에 들어선 후 다시 아르헨티나 해안을 따라 북대서양까지 북상해야 했다. 이 항선은 파나마운하 개통 이후의 항선보다 두 배는 먼 여정이었다. 이 긴 항로 자체만으로도 힘든 여정이 되는 마당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태평양의 끝자락인 마젤란해협에 들어서기 전, 송요여가 탄 배가 생각지 못한 재난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들이 탄 배가 남극에서 떠내려 온 얼음덩어리와 부딪쳐 망가지게 된 것이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배는 선이 끊어진 연과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남극으로 표류하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배가 남극의 한 작은 섬에 좌초되어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송요여는 자신이 남극의 펭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송요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남극 펭귄들이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긴급하게 배의 수리를 마치고 간신히 남극권을 벗어났지만 마젤란해협을 건너면서 이번에는 해적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배 안의 귀중한 물품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었지만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양부는 송요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의 명이 길고 복과 운이 크니 앞으로 하늘이 우리의 사업을 도울 것이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긴 여정을 끝내고 그들이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1877년 겨울이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 두 부자는 바로 양자를 받아들이는 의식을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양아버지는 송요여를 매우 아꼈다. 양자의식이 있는 그 다음 날 양아버지는 그를 위해 경험이 많은 영어 교사를 초빙하여 그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교사는 미국의 혁명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송요여에게 영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노예해방과 내전 그리고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의 삼민주의가 무엇인지도 말해 주었다. 그는 매우 걱정적으로 송요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링컨이 그러한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는 미국에 침을 빨고 욕을 했을 것이야.”

이뿐만 아니라, 교사는 송요여를 데리고 보스턴의 고적과 혁명 유적지를 찾아 다녔다. 1765년 영국왕의 세입법조정으로 일어난 보스턴 시민항쟁의 거리와 1770년 3월 5일 보스턴 학살의 킹 거리 그리고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차당이 영국의 차를 바다에 빠뜨린 것을 기념하는 지역과 1775년 4월 19일 매사추세츠 시민군들이 처음으로 영국군대에 총을 겨눈 렉싱턴, 1776년 3월 17일 민병대들이 영국군을 내쫓은 보스턴 기념지 등을 다녔다.

이는 송요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미국 민주혁명의 생생한 맥박을 느끼고, 미국 독립과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로써 그의 시야도 넓어졌다.

송요여는 미국 보스턴에 온 후, 영어공부를 하는 한편, 양부를 도와 비단과 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법을 배웠다. 미국 보스턴 기록 보관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의 가게이름은 “North American Chinese Pioneer”이었으며, 처음으로 미국 동부에 비단과 차를 수입한 전문적인 중국 상업기관이라고 되어 있었다. 송요여가 오기 전에 그 상점에서 일하는 또 다른 3명의 직원들도 모두 문창(文昌)사람들이었다. 이 상점은 근면 성실하고 세심하며 꼼꼼한 서비스로 보스턴 시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장사도 매우 잘 되었다.

송요여는 총명하고 부지런했으며, 성품이 온화하였다. 비록 어릴 적에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점포의 물건과 장부를 빠르게 파악하였다. 양아버지는 그를 매우 아꼈고 그가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 이 상점을 잇게 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송요여의 꿈은 더 컸다. 그는 작은 상점을 경영하면서 중국여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소시민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했다. 평생을 이런 작은 상점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영어 선생님은 그에게 무한한 힘을 주었고, 끊임없이 그에게 자유와 민주의 사상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고 지식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청정부가 파견한 첫 미국국비유학생 우상주(牛尙周)와 온병충(溫秉忠)의 여러 차례의 방문은 송요여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송요여는 어떻게 서양식 시스템을 중국으로 가져가 바꿔놓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국가를 부흥시켜야할지, 또한, 청년들은 어떠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비록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두 유학생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 이 두 청년들의 해박한 지식과 청산유수 같은 언변은 송요여의 학구열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였다.

우상주(牛尙周)와 온병충(溫秉忠)은 송요여가 보스턴의 상점에서 벗어나 미국 현대문명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그 학업의 성과로 조국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고심 끝에 그는 양아버지에게 공부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양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양아버지가 반대하자, 그는 깊은 밤 망설임 없이 양아버지의 상점을 떠났다. 소상인의 생활을 끝내고 몰래 보스턴항구로 도망쳐 바로 출항할 수 있는 작은 배를 찾아 몸을 실었다. 그도 이 작은 배가 어디로 갈지 몰랐다. 또한, 그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더욱이 몰랐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바로 신비하고 낯선 외부의 세계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배는 밀수를 감시하는 배였으며, 선장 찰리 가브리엘슨은 선량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송요여의 모험 정신에 감동하였다. 그는 이 외국청년이 이제 곧 물러받을 가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상과 스스로의 자립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선장은 송요여를 받아들였고 찰리 송 가브리엘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의 변발도 자르고 멋진 선원제복도 주었다. 그때부터 송요여는 미국 국세청에서 월급을 타는 선원이 되었다.

민첩하고 성실하며 용감한 송요여의 모습은 가브리엘슨 선장과 전 선원의 사랑을 얻었고, 가브리엘슨 선장은 그를 매우 총애하여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주었다. 송요여는 이 배에서 1년을 넘게 즐겁게 지냈다. 그는 배위에서 펜싱과 복싱 그리고 음악과 트럼펫 연주를 배웠다. 가브리엘슨 선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자주 설명해 주었고 미국 신교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예수전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기독교는 인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희생정신을 선양하는 곳이라 말해주었다.

가브리엘슨의 인격과 그가 끈기 있게 들려준 기독교 이야기는 송요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송요여의 마음은 점점 예수그리스도에 물들었고 미국생활에 융화

되었다.

1880년 11월 7일 이 배가 월밍턴 항구에 정박했을 때, 가브리엘슨은 그를 데리고 5번가에 있는 감리교회로 가 세례를 받게 했다. 그때부터 송요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송요여를 위해 세례의식을 해주었던 리카르도목사는 송요여와 여러 차례 깊은 대화를 나눈 후, 송요여가 서양식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병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양성해, 중국으로 돌아가 동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중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울 것을 결정했다.

리카르도목사, 로저대령, 무리대령과 줄리안 칼 장군의 도움으로 송요여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송요여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커리큘럼이 매우 빽빽하게 짜여진 '예과'에 들어갔다. 다른 학생들은 몇 년이 걸렸던 커리큘럼을 몇 개월 만에 공부해 냈다. 교수들은 송요여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소질에 맞추어 교육을 해주었고 최대한 빨리 중점적인 부분만 파악하도록 하였다. 성직자들이 일반적으로 능통해야 하는 라틴어, 그리스어, 독일어는 대략적으로만 알게 하고 영어와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하였고, <성경>의 성스러운 세계로 들어서게 했다.

송요여는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모방을 잘하였으며 기억력도 매우 좋았다. 그는 서양문화와 기독교신학의 정수를 다 깨우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읽은 <성경>의 낱말이나 구절, 전도회에서 들었던 설교들은 매우 유창하게 읊었다. 당시 동급생이었던 한 학생의 기억에 의하면 송요여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이러했다.

“찰리 송 가브리엘슨이 학교에 들어온 첫 일 년은, 우리 전교생에게도 매우 흥분되는 일 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급생들은 찰리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총명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총정리하는 능력도 뛰어나 학습 진보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의 생활 역시 매우 검소했습니다. 공부 하는 시간 이외에는 삼노끈이나 해먹을 엮는 부업을 했으며 한 푼도 낭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해서 동급생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크레이븐 원장도 그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1881년 6월 25일 송요여는 집을 떠난 뒤 6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감리회 중국 전도사 알렌에게 편지를 전해주기를 부탁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친애하는 아버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버님께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875년 동인도제도(인도네시아)에서 형과 떨어져 미국에 왔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서서는 저의 바람을 들어주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더햄 주일학교와 트리니티 학교에서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학업을 끝내고 중국으로 돌아가, 더햄 친구들의 선의와 하느님의 은혜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었고 세상의 모든 죄인으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죄인이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큰 절에 가서 나무로 된 부처님에게 절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서 평생을 참배하셨지만 나무부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고,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저는 이제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은 저를 보살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자세히 듣는다면 곧 신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머리를 들어위를 바라보시면, 곧 하느님의 영광스런 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다시 이 세상에서 아버님을 다시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방학 중이며, 칼 선생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편지를 받으시면 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의 답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저의 사랑을 어머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제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칼 선생님과 그의 부인은 매우 좋은 기독교인 부부십니다. 저에게도 매우 잘 해주십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 트리니티 대학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요여는 일 년 동안 아주 즐거운 예과 생활을 보냈다. 이 기간에 그는 영어 뿐만 아니라 문학적 조예와 신학 지식도 나날이 깊어져 갔다. 게다가 그는 학교의 전도와 성금활동에도 자주 참가하였다. 또한, 노예해방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빈번히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송요여는 예과생활이 끝난 후에도 남부 반더빌트 신학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1885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 기간에 송요여는 중국 해남 문창현에서 보낸 편지를 받게 된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의학공부를 하여 사람들을 구하고 죽음에 처한 사람과 부상자를 치료해주길 바랐다. 그래서 송요여는 반더빌트대학을 졸업하고 또다시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감리회지도자들이 처음 그에게 교육을 제공하게 된 이유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또한, 때마침 미국의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선교활동은 중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미국남부감리회 역시 상해로 선교사를 파견해야 했고, 송요여와 같은 미국의 문화를 잘 아는 중국인이 선교사를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었다.

그래서 1885년 10월 노스캐롤라이나주 감리회는 맥타이어주교의 주관 하에 특별의식을 진행하였고 반더빌트신학대학 졸업생 찰리 송 가브리엘슨을 수습 목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그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 알렌 목사 밑에서 일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0여 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태평양 유조선회사의 증기선에 올라 상해로 돌아왔다.

2) 선교사, 거상, 혁명가

1886년 1월 13일 송요여는 해외의 오랜 방랑의 세월을 끝내고 간절히 그리워 하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상해부두에 도착하자 그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다. 선조들이 살아온 대지를 바라보며 그는 매우 친근한 친밀감과 여태껏 알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서 꿈을 실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

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상해에 처음 도착했을 때 송요여는 미국 감리회 소속 중국 전도구역의 견습목사로 파견되었다. 상해에서 보고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은 그를 고민하게 하였고, 또한 실망하고 방황하게 하였다.

청(淸)정부의 군주제, 서양인들의 횡포, 평등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으며 자유롭지 않은 부패한 기운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이러한 것들은 그가 상상했던 범위를 크게 넘어서서 그를 어지럽게 하였다. 게다가 감리회 내에서 배척까지 당하자 그는 하루하루를 우울한 감정으로 살아갔다. 단지<성경>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의 말씀으로 자신을 달랠 뿐이었다.

송요여는 상해 근교의 우송구(吳淞口)에 배치되어 포교활동을 하는 동시에 교회 안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 매달 15달러가 안 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중국의 보통사람들보다는 생활수준이 나은 편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그의 차림새나 행동거지로 말하자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다. 다른 중국인들처럼 검은색 옷을 입거나 변발은 하지 않았고 서양식 복장을 하고 다녔으며 서양인처럼 정갈히 넘긴 올백 머리를 하고 다녔다. 이는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모습이었고, 어느 장소에도 잘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아이들은 그를 “양놈”라고 놀렸다.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고, 일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송요여는 마냥 의욕을 상실한 채 처져 있었다. 그가 매우 우울해 있을 때 짝 우연한 기회로 미국 성공회의 안영경(顔永京)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로써 그의 외로운 생활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안영경(顔永京)은 처음으로 미국대학을 졸업한 중국 목사였다. 그는 다른 미국 성공회 목사 오홍옥(吳虹玉)등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상해 공동조계의 행정기관인 시의회에 상소를 올려 와이탄(外灘) 화원(花園) 입구에 걸려있는 '중국인과 개 출입금지'이라는 팻말을 떼고 중국인의 출입을 허가하라는 항의를 하였다. 이를 보고 송요여는 매우 감탄하였다.

안과 송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 하였다. 안영경은 간곡한 말로 송요여에게 충고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서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변발

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 중국인이시고, 또 선생님의 중요한 임무는 중국인들에게 전도하여 많은 동포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변발을 기르고 중국식 의관을 갖추지 않으면 중국인들은 선생님을 '양놈 흉내나 내는 놈'으로 생각할 것이고, 선생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선생님의 손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까?” 송요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물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중국인들의 목사시고, 또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머리를 기르고 변발을 하겠습니다!”

송요여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화 도중 송요여는 미국에서 알고 지냈던 온병충과 이상주의 최근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그 둘 역시 상해에 있었다. 온병충은 상해세관에서 관원으로 일하였고, 이상주는 상해 우정국에 있었다. 송요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옛 친구들이 모이니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세 사람은 미국에서 헤어진 후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국가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이상주는 매우 분개하며 말했다.

“지금의 청정부는 부패가 심합니다! 중국에는 법도 없고 민주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황제가 전부이고 국민은 모두 노예입니다!”

“우리 혁명을 합시다! 중국의 워싱턴과 링컨을 만들고,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시다!”

송요여 역시 매우 흥분되었다.

“우선 영국에서 온 점령군을 몰아냅시다.”

이상주는 창문 밖에 마장 안을 뛰어다니는 영국, 인도 군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다음 이곳 청정부를 뒤엎읍시다!”

“지금 중국 곳곳에는 외국 식민주의자들의 세력이 뻗쳐져 있습니다. 우리 상해세관은 헤르더 한 사람이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중요한 항구를 모두 점령하고 있고, 중국 관리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말 분합니다!”

온병충이 말하였다.

“상해 세관만 하더라도 매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 은 1억 냥 이상을 대가 없이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피를 모두 빨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를 누리는 이러한 부패정부가 저주스럽고, 이런 정부의 관리로 사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 반노예제도의 조정 대신들을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송요여가 말했다. 이때부터 송요여, 온병충 그리고 우상주 등의 사람들은 자주 집회를 열어 함께 토론하고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며 사상을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상은 너무 높고 힘은 너무 적어 현실과 동떨어져 고립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이 서양의 신앙을 믿고 서양의 의복을 입는 것은 그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중국인들과 융화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되었다. 그들은 서양을 배워 개혁하자는 원대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서양을 숭배하고 옛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은 미국의 '자유의 아들'을 모방했다. 이 단체는 미국의 독립운동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귀국 유학생 단체인 미국유학생회가 만들어졌고, 우상주, 온병충 두 청정부 관원이 지도자적 역할을 하였다.

이 조직은 음악회와 체육 활동의 명목으로 자주 집회를 가졌고,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구해야 하는 도리를 전하였다. 삼시간에 참가인원수가 늘어났다. 그들의 활동은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래도 결국에는 청정부로부터 의심을 사게 되었다. 상해 감찰사 공조원(龔照瑗)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 미국유학생을 엄격하게 감시하게 하였고, 반란을 일으키면 과감하게 제거하라고 하였다. 청정부의 협박과 위협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송요여와 우상주, 온병충 등 몇 명만 남아 이 단체를 유지하게 되었다. 원로에는 안영경과 오홍옥 두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이들을 동정하고 지지하였다.

미국감리회 중국지역교구장인 알렌은 이 사태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졌다. 그는 송요여에게 정치활동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을 했었고 그렇게 되면 교회와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많은 압력으로 미국 유학생회는 해체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들은 와이탄공원에 걸려있는 '중국인과 개 출입금지'의 팻말을 없애달라는 항의를 계속했다.

알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송요여를 불러 질책하였다. 또한, 이후부터 정치활동 참여를 허락하지 않으며 그에게 농촌으로 가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그는 내륙으로 파견되어 강소((江蘇) 곤산(昆山)의 순회 전도사가 되었다.

곤산(昆山)에서 송요여는 박봉에 보잘것없는 시골집 작은 방을 한 채 빌렸다. 크기가 작아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비가 많이 내릴 때면 방안에서도 작은 가랑비가 내릴 정도였다. 이렇게 허름한 방처럼 당시는 그의 환상이 모두 무너지는 매우 가혹한 시기였다. 중국인들은 그를 싫어했고 그를 서양인도 중국인도 아닌 이상한 작자라고 생각했다. 외국인들은 그를 깔보았고, 기껏해야 한낱 꿈을 가진 농민 정도로 취급했다. 송요여는 매우 낙심했고 온 세상이 캄캄했다.

이렇게 모든 의욕을 잃었을 때 송요여는 그의 부인 예계진(倪桂珍)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생활이 또 한 번 바뀌게 되었다.

송요여와 예계진은 우상주를 통해 알게 되었다. 예계진은 절강성(浙江省) 여요현(余姚縣)의 사대부집안에서 태어나 매우 현명하고 교양이 넘쳤다. 예 씨 집안 조상 중에 명대 대학사인 서광계(徐光啓)의 딸에게 장가를 간 사람이 있어 예 씨 집안사람들도 서광계(徐光啓)처럼 대대손손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예온산(倪韞山)에 이르러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예계진은 어려서 서당공부를 하였고 상해 배문(培文)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낡은 예교를 믿지 않았고 남녀평등을 주장했으며 여성해방을 원했고 진족을 하지 않았다. 예계진의 큰언니는 우상주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언니는 온병충과 혼인을 하였다. 우상주와 온병충 두 사람은 송요여라는 가까운 친분의 인재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자진해서 중매쟁이로 나서, 처제를 소개해 주었다. 송요여와 예계진은 서로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 둘은 공통의 신앙이 있으며 모두 서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금방 마음이 통하였다. 송요여와 예계진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혼을 서둘렀다.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운이 좋을 때는 철도 빛나지만, 운이 나쁘면 황금도 그 색을 잃는다. 결혼 후

송요여는 그야말로 개운의 시기를 맞게 된다. 낙담은 즐거움으로 바뀌었고, 고독은 행복으로 바뀌었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결국 후에 큰 결실을 얻게 된다.

영웅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만들어진다. 송요여는 19세기말 중화 대지의 빈번한 혼란과 화염 속에서 우뚝 선 사람이었다. 1888년 송요여는 청정부 통치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 삼합회에 가입하였고, 이는 그가 선교사에서 혁명가로 바뀌는 과도기적 시기가 되었다. 반청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 언제든지 죽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송요여는 미국에서 받은 링컨사상의 교육 영향으로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반청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동시에 그의 전도사 생활에도 운이 트기 시작한다. 알렌 역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고 그를 정식목사로 임명하여 상해로 돌아오게 했다.

반청사업은 송요여가 돈을 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고, 미국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과 여러 해 동안 배워 온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으로 매우 빠르게 사업가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송요여의 시선은 종교 서적으로 집중되었다. 당시의 종교서적은 대부분 해외인쇄물이 중국으로 운송된 것이어서 가격이 매우 비싸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책들은 모두 영어책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송요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처음에는 잠시 도매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직접 인쇄공장을 운영하였다. 저렴한 종지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종교서적을 인쇄했다.

이는 매우 대범한 시도였으며, 단번에 성공한 시도였다. 또한 이는 그의 종교사업과 반청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종교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성경> 등과 같은 서적이 상해사투리로 번역되자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나 선창 하역부, 밭을 가는 농부들이 모두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종교의 전도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인쇄 수량도 크게 늘어났다. 반청활동에 있어서는 자금을 마련하여 반청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인쇄공장은 송요여의 경영하에 일사불란하게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에 시달리는 밀가루공장을 송요여가 맡게 되면서 그는 상해에서 사업가로서 더욱 새로운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1892년 여러 가지 이유로 송요여는 성직을 떠나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서 진정

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화미인서관(華美印書館)을 만들어 미국성서협회와 계약을 맺고 <성경>의 중국어판을 출판하였다. 경영에 일가견이 있던 그는 매우 빠르게 출판 사업가로 성공하게 된다. 그의 훌륭한 외국어 실력과 서양의 선진기술 그리고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도 밀가루와 증장비기구 등 사업에 뛰어들어 외국의 기계를 상해에 수입해 오거나 합자를 통해 밀가루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해 초기 사업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때부터 송요여는 출세의 날개를 달아 점차 백만장자가 되어갔다. 그는 송 씨 가문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송 씨 가문을 연 장본인이 되었다.

성직을 떠나긴 했지만 송요여는 여전히 진심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크리스찬이었다. 그의 상업적인 성공은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상해감리회 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추앙받았다. 향후 그는 몇몇 중국국적의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연합하여 중국의 기독교 청년회를 설립하였고, 상해미국성경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경비를 감리회 활동에 지원하였다. 부인 예계진 역시 상해에서 활발한 교회활동을 하며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그들의 집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가는 집회장소가 되었다.

송요여는 선교사이자 상인이었고 또한, 혁명가이기도 하였다. 1894년 송요여는 손중산(孫中山)을 알게 되고 그를 추종하게 되었다. 손중산의 혁명정신에 감동을 받은 그는 중국혁명의 적극적인 지원자이자 참여자가 되었다.

송요여와 손중산은 단번에 친한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모두 광둥(廣東)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삼합회 회원이었고,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도 같았다. 게다가 모두 기독교인이었고, 의행천하(醫行天下: 의술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다)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같은 신앙, 같은 생각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청나라를 뒤엎고, 잃어버린 강산을 되찾는 것이 손중산 등 혁명가들의 첫 번째 목표였다.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선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혁명단체를 설립하고 혁명을 위한 여론을 키워야 했다. 손중산은 그의 혁명단체의 이름을 흥중회(興中會)로 하였는데, 이는 중화진흥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송요여는 흥중회(興中會)의 첫 경비로 쓰기 위해 기계 수입 사업으로 번 돈 중 거금을 빼내 지원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손중산의 혁명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송요여는 이와 같이 말하였다. “정의가 곧 힘임을 믿읍시다. 이러한 신념을 품고 용감하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그는 또한 엄숙한 태도로 손중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목사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제정치를 자유정치로, 군주의 권력을 국민의 권력으로 만들고,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이 정치하며,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처럼 혁명의 최전선으로 뛰어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은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경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암암리에 여러분들을 위한 연락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송요여는 손중산 혁명 활동의 배후 지지자였다. 그가 개설한 화미인서관((華美印書館)은 손중산이 상해에서 혁명당원들과 연락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 또한, 송요여는 서양교육을 받고 혁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손중산에게 소개해주었고, 손중산의 혁명 활동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손중산 그리고 중국 민주 혁명에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송요여 역시 이로 인해 혁명당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3) 진보적인 아버지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송요여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안목과 중국과 서양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남존여비의 세속적인 편견을 경멸하였고 자녀들이 스스로 생활 속의 도전들에 직면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연이어 자신들의 여섯 자녀를 모두 서양으로 유학 보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는 간곡한 바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자녀를 교육했고, 마침내 여섯 자녀 중 네 명의 자녀가 20세기 중국정치 무대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송요여와 예계진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모두 훌륭한 교양을 갖췄다. 또한 서로 사이가 무척 좋아 정이 매우 돈독했다. 집안에서의 역할 분담은 매우 엄격했다. 아내는 가사 일을 맡았고, 남편은 바깥일을 하였으며, 아이들의 교육은 부부 모두의 의무였다.

송요여 부부에게는 모두 여섯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사위들은 중국 근현대사에서 최대의 송가왕조를 만들어 냈다. 송씨 집안의 가장인 송요여와 그 부인 예계진은 중국 역사에 특별한 공헌을 했는데, 이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에 정성을 쏟아 그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다는 것이다.

송요여는 아이들의 천성이 발전될 수 있는 교육이 가장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교육이라 생각했으며, 아이들의 천성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행동은 매우 우둔하고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여 반대하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00명의 아이들 중에 1명의 아이가 매우 출중한 인재라면 중국에는 400만 명의 뛰어난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재 아직도 중국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송씨 부부는 개성을 억압하는 중국의 낡은 교육을 버리고 현대적인 스파르타식 기독교적 교육방식을 추구하였다. 즉, 아이들의 천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기독교정신을 갖춘 스파르타 용사와 같은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다.

송요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 아이들이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절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아이들의 자제력이 양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송요여는 맹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여 그 몸과 살을 줄이게 하며 그 몸을 비게 한다.

그는 이 사상을 가르침 삼아 아이들을 교육하였고, 아이들의 자제력과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송애령이 걸음마를 막 시작하여 자주 넘어지게 되었을 때도 그는 애령을 바로 일으켜 주지 않았다. 그는 고무공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용감하게 일어나거나 아가야,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보렴!”

아이들에게 비를 맞게 하는 것은 송요여의 교육방법 중 하나였다. ‘거센 바람이나 소나기를 만나더라도 길을 잃지 말아야한다’. 이는 송요여의 신념이었다. 그는 태풍이 부는 날 애령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빗속에서 비를 맞도록 하였다. 애령의 외할머니는 방 안에서 안절부절 불안해하였고, 부인 예계진도 차마 창밖을 내다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애령은 온몸을 흠뻑 젖은 채 방안으로 뛰어 들어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가 또 한 번의 시련을 견뎌냈어요!”

송요여는 아이들의 과감한 판단력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개척하는 정신을 양성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주 자신이 해외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들을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들은 하나의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란 없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또한, 세상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 아이들에게 비범한 열정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쟁취하는 사람만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었다.

송요여는 자녀의 인격 수양을 중요시했을 뿐 아니라 학습에도 매우 엄격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교사를 초빙하여, 과목별로 단계를 나누어 수업을 하도록 하였다. 오전에는 영어와 라틴어를, 오후에는 중국 고전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부인 예계진은 손수 책 읽기나 음악을 가르쳤다.

송요여는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매우 중요시하였고, 미국에서 유아용 서적을 많이 사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가 돌아가면서 이를 읽고 쓰는 연습을 시켰다. 1898년 송요여는 장녀 송애령과 함께 <상해 어린이신문>을 편집하였다.

그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이들 스스로 신문의 주요 글들을 쓰도록 하였다. 이는 자녀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들이 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충실한 친구였고 열정적인 독자였으며 인쇄를 담당할 책임자였다. 이 신문은 가장 어린 두 아이 자랑과 자안이 세인트존스대학 부속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단되었다. 이러한 창조적이고 자립적인 활동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스스로 훌륭한 글의 문장을 쓸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영어공부와 함께 중국어학습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더 많은 지식과 재능을 갖추어 조국에 보답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중국어도 잘해야 한단다!”

그는 앞으로 중국을 이끌 지도자들은 중국과 서양을 모두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감독 하에 아이들의 중국어 실력이 매우 빠르게 늘어갔다.

아이들의 사회적 지식을 늘리기 위해 송요여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인쇄소, 밀가루 공장, 담배공장과 섬유공장 등을 돌아 다녔다.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었고 인력거를 타고 번화가를 지날 때에는 아이들에게 도시의 내막과 약육강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들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교육 하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쌓았고 견식을 넓혔으며 특히 사람됨의 도리를 배워나갔다. 또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의지와 자부심을 키워나갔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도록 했지만, 아이들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이를 반대하였다. 할머니는 그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예계진 역시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은 반드시 사회적이어야 하며 가정교육이 아무리 좋더라도 단체생활에서 배우는 것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다 자라면 사회로 나가야 하고 혼자서 사회의 여러 도전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회에서 단련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2. 친진난만하고 활발했던 소녀 시절

어린 시절 송미령은 매우 활발하고 영특했으며 나무에 기어올라 복숭아를 따 먹으며 노는 장난스런 아이였다. 송미령은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10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으로 보내졌으며, 의사의 꿈을 품은 아이였다. 미국 남쪽의 작은 마을 피드몬트에서 9개월간의 즐거운 생활을 보내며 그녀는 점점 ‘남부사람’이 되어갔고 그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지아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녀는 친구들과 매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짓궂은 장난을 치면서 놀거나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였고 심지어 자신만의 신문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소녀시절을 보냈다.

1) 장난기 가득한 작은 여자아이

1897년 3월 5일 (중국음력 2월 12일), 송미령은 옛 프랑스 조계지였던 상해에서 태어났다. 당시 송요여는 감리회를 떠나 상해의 돈 많고 권력 있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고, 흥중회의 집행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송미령은 우월한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송미령은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다. 겨울에는 어머니 예계진이 두꺼운 솜저고리를 입혀 그렇지 않아도 포동포동한 아이가 더 동글동글해 보이곤 했다. 당시 그녀는 뽕뽕한 것이 잘 굴러다닐 것만 같은 마치 고무공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어린 시절은 매우 통통했습니다. 나의 숙부는 저에게 ‘작은 호롱’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내 기억으론 서너 살쯤 되어서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곧잘 넘어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옷이 매우 두꺼워서 걷기가 곱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통통하기도 했고 옷이 아주 잘 감싸 주웠기 때문에 넘어져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양 갈래로 땀아 빨간 리본으로 묶은 다음 동글게 말고 다녔습니다. 이는 모두가 아는 ‘게 눈머리’ 모양으로 당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머리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꽃무늬 옷을 입혀주셨고, 그것은 등 뒤에서 단추를 여미는 짧은 상의이었습니다. 나의 신발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고양이모양으로, 양쪽에는 귀가 달려 있었고 위에는 고양이수염과 눈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남자아이 옷을 입혀 주셨는데, 아마도 내가 왈가닥 소녀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나의 행동거지가 꼭 남자아이와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언니들의 옷보다 오빠들의 옷이 더 잘 어울렸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도, 나의 오빠 자문의 옷은 너무도 빨리 작아졌습니다. 이삼개월정도 지나면 오빠에게 새로운 옷을 지어주어야 했고, 나는 오빠의 이 작아진 옷을 물려 입어야 했습니다. 9살에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저는 대부분 남자아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은 매우 영특하고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다. 예계진은 여러 방면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였는데, 딸들에게 글자와 짧은 글짓기를 배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바느질도 능숙하게 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예계진은 교양 있고 참한 부인 한 명을 모셔와 여자아이들에게 자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였다. 천성적으로 활발한 미령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선생님이 수놓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어대었다. 그녀가 옷자 애령과 경령도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그러자 선생님은 매우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또 한 번 웃으면, 나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어!”

세 자매는 ‘가르치지 않겠어!’라는 말을 듣자, 마치 특별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매우 빠르게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송 씨 집안의 저택 뒤에는 큰 채소밭이 있었고, 담을 사이에 두고 양측에 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한쪽에는 가로수가 심겨 있었고 또 한쪽에는 지역 사람들이 심어놓은 과일나무들이 있었다. 복숭아나무에 달콤한 복숭아가 가득 열리면 세 자매는 크고 신선해 보이는 복숭아를 보며 침을 흘렸다. 그러면 작은 미령이 두 말 않고 신발을 벗어버리고는 가로수를 타고 담장 밖으로 뛰어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복숭아나무를 타고 올라가 날렵하게 복숭아를 따서 언니들의 손에 떨어뜨려 주었다. 애령과 경령은 복숭아를 받아 바닥에 앉아 먹었고, 미령은

내려올 틈도 없이 나무 위에서 복숭아를 먹었다. 세 자매가 맛있게 복숭아를 먹고 있으면 멀리서 고함소리가 들리면서 농가주인이 달려왔다. 매우 놀란 어린 미령은 나무에 앉은 채로 입안에 반쯤 베어 문 복숭아를 머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애령과 경령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송요여가 나와 일을 처리하였다.

예계진은 세 딸에게 여자답지 못하게 하라는 자수는 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킨다고 크게 꾸짖었다. 하지만 송요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몇 푼만 들이면 아주 좋은 자수를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세밀한 작업을 요하는 일로 아이들의 눈을 나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눈은 책을 읽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 자매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그녀들은 동네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숨바꼭질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다. 하지만 미령은 잘하지 못하였다. 미령은 자신이 숨을 차례가 되면 어디에 숨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금새 친구들에게 들켜버렸다. 또 친구들을 찾아야 할 때에는 어디서 그들을 찾아야 할지 몰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미령은 아이들에게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이 되기에 심상이었다. 아이들은 미령과 함께 노는 것을 꺼려했다.

또 숨바꼭질을 할 때였다. 미령의 계속된 애걸에 아이들은 하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놀게 되었다. 하지만 한 아이가 미령을 따돌릴 방법을 찾아 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화원에 서서 눈을 감고 100을 다 셴 다음 우리를 찾아.”

미령은 통통한 손으로 눈을 가린 다음 하나하나 수를 세어갔다. 수를 빨리 세기 위해서 20에서 30 심지어는 40으로 뛰어넘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령이 100을 다 세고 매우 신나서 눈을 떴다. 아이들을 찾으려 하는데 화원은 매우 적막했고 그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미령이 계속해서 찾았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미령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다른 곳에서 놀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버려졌고 무시되었고 바보 취급당한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미령은 어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슬프게 엉엉 울었다. 그 때 큰 언니인 애령이 뛰어와 그녀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 주었다. 미

령은 훌쩍거리며 물었다

“언니, 내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너는 분명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큰언니는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녀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미쳤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송미령은 이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일들은 미령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열등감으로 만들어진 그녀의 엄숙함은 그녀를 충동적이고 오만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감정이 격해 질 때에는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거나, 붉은 두드러기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만성피부병은 여러 해 동안 미령을 괴롭혔다.

큰언니인 애령은 어렸을 때부터 미령을 잘 돌보아 주었고, 한 번도 그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미령은 큰언니를 영웅처럼 따랐고, 나중에는 그것이 점차 두터운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미령은 큰언니가 하는 모든 말과 계획을 따랐다. 애령이 집안일을 돌볼 때도 미령은 애령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고, 마치 애령의 제자가 되어 앞으로 언니의 역할을 대신할 것처럼 굴기도 하였다.

송미령이 5살이 되자 그녀는 언니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계진은 미령이 아직 공부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하여 허락 해주지 않았다. 남편 송요여는 아이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해 주었다. 미령이 학교에 가겠다고 한 다음 날 그는 직접 학교에 찾아갔고, 교장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자 교장은 바로 미령의 입학에 허락해주었다. 집안사람들은 미령에게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해주었고 꽃 저고리를 입혀주었다. 부모님의 신신당부와 함께 미령은 맥타이어(McTyeire 중서여숙)여자학교 유아반에 입학하였고 둘째 언니 경령과 같은 숙소에서 살게 되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미령은 학교생활에 아주 잘 적응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즐겁게 수업을 들었고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았다. 또한, 그녀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도 곧 잘 지냈다.

미령은 매우 활발하고 대담한 아이였고 강한 아이였다. 교실에서 숙소로 가는 계단 사이에는 매우 캄캄한 통로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여자아이는 그 길로 다니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미령은 이곳을 몇 번이나 대담하게 지나갔다.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왜 미령이 처럼 그곳으로 다니지 않지?”

선생님의 관심을 받은 미령은 매우 의기양양해 하며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사실 미령은 다른 누구보다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무서워했다. 단지 가까스로 버텨올 뿐이었다. 매번 그 곳을 지날 때 마다 식은땀을 흘렸고, 잠을 잘때에는 악몽을 꾸지고 했다.

한번은, 미령이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창문에 비친 나무그림자를 보고 귀신으로 착각해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다음날 선생님이 발견하고는 이를 송요여에게 말하였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송요여는 미령을 집으로 데려가, 집에서 가정교사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미령은 영어와 중국 고전문학을 공부하였고 붓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출국하기 전까지 미령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였다.

세 자매 중,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녀가 바로 송미령이었다. 가장 어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귀여운 모습에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더욱 그러했다. 얼굴은 둘째 언니인 경령을 많이 닮았다. 술이 없는 눈썹에 가는 눈, 작은 코는 위로 살짝 들춰졌고, 얇은 두 입술은 마치 금붕어 같았으며, 보조개가 있어 아주 예뻐지만 경령만 못하였다. 성격은 큰언니인 애령과 비슷했다. 경령은 비교적 섬세하고, 차분하며, 상냥했지만 미령은 큰언니처럼 야망이 있었고 기개가 남달랐으며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다.

송요여는 미령을 총애했고 어디를 가든지 미령을 데리고 다녔다. 그는 미령에게 인쇄소, 밀가루 공장, 담배공장, 방직공장 등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녀를 데리고 그의 사무실을 가기도 하였다. 상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사취하려하거나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종목에 투자하려 할 때에도 미령은 사무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것들을 바라보았고, 그 과정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미령의 총명함과 천성적인 영리함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송요여와 예계진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아이들의 문화와 지식교육 이외에도, 아이들의 정서 수양으로써 종교 신앙도 중요시 하였다. 비록 그러한 의미를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유년 시절 시작한 신앙교육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송미령은 감격스

러운 마음으로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신자셨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나 교회에 나갔고, 매일 가정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때는 재미없는 설교를 듣는 것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마다 그녀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었고, 또한, 그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에게 종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셨고, 자비로우셨으며 자신을 낮추어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남을 해하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모든 자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아마 그중에서 제가 받은 충격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녀의 가장 어린 딸이자, 그녀를 가장 많이 의지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2) 10살이 채 되지 않아 미국 유학을 떠나다.

20세기 초, 중국에서는 부유하고 개방적인 가정만이 자녀들을 유학 보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었고, 아주 적은 수의 여자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하지만 송요여 부부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 역시 모두 해외로 유학을 보냈다.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유했던 재산과 미국교회의 교우들의 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송 씨 집안의 세 자매 중에 가장 먼저 해외 유학에 나선 것은 큰 언니 송애령이었다. 1904년 5월 28일, 감리교 윌리엄 버크 목사의 추천으로 겨우 14살의 나이에 송애령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현존하는 자료에 의하면, 송애령은 가장 처음 공식적으로 미국유학을 간 중국 여자아이였으며, 그녀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 메이컨시의 웨슬리안여자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송애령은 메이컨으로 온 그 다음 달 ‘예과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녀는 강한 의지력과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령은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매우 진중했습니다. 또한, 도도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함부로 말하지도, 잘 웃지

도 않았습니니다.”

큰 언니의 성공은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었다.

1906년, 송요여는 손중산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뉴욕에서 큰딸을 만나 뉴저지주의 작은 마을인 서미트시로 가 클라라 바트윈양이 설립한 학교를 참관하였다. 이 학교는 아주 적은 수의 중국학생을 선발하였고, 그들의 미국대학진학을 도왔다. 참관과 상담을 통해 송요여는 이 학교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다.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 해에 두 딸을 이곳에 보내어 공부를 하게 하였다.

미국으로 간 그 해에 즉 1907년, 송미령이 1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송요여는 그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송경령이 이미 출국할 나이가 되었을 때 미령은 둘째 언니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미령이 병이 났을 때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당시 송요여는 손중산의 혁명 활동에 참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다. 혹시라도 청정부에 발각되게 되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 이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딸들을 보낸 후, 큰 아들 송자문 역시 상해 세인트존스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 보내졌고 더 많은 교육을 받게 하였다. 남은 두 작은아들 자량과 자안도 위협이 생기면 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해 송요여 부부는 서로 침예한 이견을 다투었다. 부인 예계진은 중국의 봉건국가에서 태어난 여성은 봉건적 사상인 '충효예의, 삼강오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으며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처럼 외국에 나가 공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송요여의 생각은 그녀와 완전히 달랐다. 그는 10년 동안 서양교육을 받았고, 사상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어 생각이 제한적이거나 속박되지 않았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려면 해외로 나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야하고, 선진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6명의 자녀를 모두 해외로 유학 보냈다.

1907년 여름, 송경령과 송미령은 둘째 이모부인 온병충을 따라 만주리(滿洲里) 호 여객선을 타고 미국으로 갔다. 온병충이 당시 청정부관부로서 교육사무부의 미국 방문을 통솔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는 송씨 두 자매도 함께 돌보아 주었

다.

여객선 만주리(滿洲里)호는 노을을 맞으며, 바람을 타고 험한 파도를 헤엄쳐 나가 드넓은 태평양 위를 항해했다. 미령과 경령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멀리 고향을 바라보며, 고향과 애뜻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으로 큰 바다를 여행하게 된 두 자매는 눈앞의 모든 것이 신기했고 신비로웠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미령은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그곳에 매우 큰 동경과 환상을 품고 있었고, 터무니 없는 상상들도 하였다.

배에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하루는 미령과 함께 갑판 위를 걸으며 그녀가 미령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이 다음에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니?”

미령은 고민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는 당시, 중국 여자아이가 말하기에는 조금 놀랄만한 이야기였다.

미령의 대답은 영국 소녀를 매우 놀라게 하였다. 그 소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말하였다.

“의사! 세상에나, 그 일은 좋지 못해. 의사는 사람들의 다리를 자를 수 있어야 해. 알고 있니?”

“그래?”

미령도 영국소녀 못지않게 놀랐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결벽증이 있었다. 더럽고, 시끄럽고, 너저분한 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가장 깨끗해 보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깜빡이고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되지 않겠어, 너무 더러워.”

이것으로 보아, 당시 미령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견해가 없었고, 그녀조차도 자신이 하루아침에 중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다.

보름이 넘는 선박생활이 지나자, 만주리호는 마침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해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었다. 큰 언니 애령이 이미 부두에 나와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만난 세 자매는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바트윈양 학교의 학생들 나이는 보통 9살 정도로 미령과 비슷했다. 미령은 천성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활동적인 아이였다. 학교에 들어 간 후, 그녀는 더욱 활발한 성격을 보이며 높은 나무를 오르거나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놀았다. 그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였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흥미진진한 놀이였다. 그녀는 신기한 식물이나 물건 심지어 사람까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꼬치꼬치 그것을 캐물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령에게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다. 멀리 있는 아빠 엄마가 그리울 때였다. 이때만 되면, 그녀는 학교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답답한 마음을 풀곤 했다.

송경령은 동급생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나이와 성격 탓에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했고 구석진 곳에 숨어 종종 성인들이 보는 소설이나 서적들을 읽었다.

서미트시에 있을 때, 송경령은 동생을 데리고 시도서관에 가서 책을 자주 읽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갔다. 특히 <피터래빗>과 같은 동화책을 좋아했다. 이는 동양에서 온 두 소녀를 낯설이 성숙하게 만들었다.

3) 미국 남부에서의 성장

1909년, 송경령은 메이컨시 웨슬리안여자학교 문학과에 입학하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송미령은 나이가 어려서 대학진학은 어려웠고, 데모레스트에 남아 동급생들과 함께 피드몬트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송경령과 큰언니 송애령은 동생 송미령을 송애령 친구의 어머니댁인 모스부인집에서 살도록 도와주었다. 주일마다 애령과 경령이 과일들을 사들고 미령을 찾아가 미령이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령은 이 작은 마을이 좋았고 마을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녀는 헌터아저씨의 잡화점에서 파는 달짝지근한 5센트짜리 껌을 사 친구들과 함께 나눠 씹으며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

송미령은 피드몬트에서 매우 즐거운 9개월을 보냈다. 그녀는 반 안에 많은 친구들이 멀리 산간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계유지와 기초교육을 받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힘들게 교육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탄하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민족의 기둥과 같은 존재이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송미령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녀의 영어 실력은 그리 좋지 못하였다. 단어표현에서, 종종 우스꽝스러운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선생님은 그녀에게 문법에서 문장을 분석하도록 가르쳤고,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미령은 비교적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철학 성적도 좋았고 평균점수도 98점이나 되었다. 하지만 산수 성적은 비교적 좋지 않았다. 특히, 백분율 환산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겨우 ‘c등급’을 받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송미령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독교의 ‘나를 사랑하여 널리 사람에게 보급하라’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 25센트씩 모아 1달러를 만들어 감자, 우유, 햄버거와 오렌지 등을 사서 철도 부근의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선량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당시 그녀들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는 숲으로 도토리를 따러가는 것이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녀들은 먼지가 가득한 긴 길을 따라 숲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 밤이 늦도록 숲에 있게 되었는데, 운 좋게도 마차를 끄는 선한 농부를 만나게 되어 숲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점심으로 먹었던 옥수수빵과 기름으로 튀긴 치킨다리를 그녀들에게 건네주었다. 그 착한 농부는 숲이 끝나는 곳에서 그녀들을 내려주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자아이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무숲을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도토리나 블랙베리를 따곤 했다.

당시 송미령은 많은 책을 읽었다. 특히 살고 있는 집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나무걸상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남자숙소관리인이었던 모스부인의 집에서 살면서 그녀의 딸인 로지나 그리고 루비와 함께 지냈다. 로지나는 송미령이 떨림음과 반 떨림음 그리고 화음 및 피아노 오지연습 등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때 그녀는 <The little mouse fields around>와 같은 멜로디를 배웠고, 또 <The shepherd>와 같은 곡도 연주하였다.

9개월의 생활은 송미령이 미국남부의 이 작은 마을에 정을 붙이기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녀의 영어 발음 또한, 남부의 말투가 되었다. 미국 생활 중에, 송미

령 역시 남부사람 행세를 했다. 한 번은, 역사 선생님이 그녀에게 셔먼장군이 남북전쟁에서 남쪽을 공격한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였다. 송미령은 당시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는 저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남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송미령은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대학공부의 조건에 미치지 못했고 '특별상'으로도 웨슬리안여자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미령이 12살 때 학원원장 제리가 퇴직하면서 새로운 원장 앤 스워프가 왔고, 새 원장은 본원이 아닌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살 수 없는 이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송미령은 송경령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송씨 집안 3자매 모두 조지아에서 5년 이상을 살았지만 미령은 웨슬리안여자대학교에서 단지 1년 정도밖에 공부할 수 없었고, 나머지 4년은 모두 규정이 사라지거나 개정되면서 그곳에서 기숙만 했을 뿐이었다.

원장 앤 스워프에게는 송미령 보다 2살이 어린 딸 에로이시가 있었고, 그녀 역시 학교에서 살았다. 에로이시는 매우 연약했지만 성격이 활발하여 두 소녀는 매우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녀들은 빅토리아 본관복도를 자주 뛰어다녔고, 학교안의 여학생들을 엿보거나 골려 먹는 것을 좋아했다. 송미령은 기숙사에 자신의 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원장 앤 스워프의 집에서 보냈다. 앤 스워프 부인이 지난날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썼다.

그녀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 함께 놀았고, 에로이시는 매우 즐거워했다. 미령은 이곳에 온 첫 날부터 우리와 전혀 거리낌 없이 지냈으며, 그녀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에로이시와 함께였다. 한 번은 둘이 싸웠는지, 입을 삐죽거리며 굳은 얼굴로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들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말하였지만 미령의 입은 여전히 나와 있었다. 에로이시는 친구의 감정이 상해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미령에게 넓은 아량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좁은 마음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미령은 눈을 깜빡이더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요. 앤 스워프부인, 저는 오히려 이것이 편해요!”

두 여자아이는 객실의 커튼 뒤에 숨어 학교 소녀들이 남자친구들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엿보곤 했다. 그리곤 깔깔대며 뛰어와서는 나에게 보았던 광경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들보다 더 낭만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녀들이 고백이라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마치 소녀라도 된 냥 흥분하기도 하였다.

나의 아들 윌리엄과 말콤은 두 여자아이를 손수레에 태워 학교의 긴 복도를 달리곤 했다. 이 때 미령은 땀은 새까만 머리가 흐트러져 바람에 휘날리곤 했다. 윌리엄과 말콤이 그녀들과 놀아주면 미령은 항상 즐거워했고, 미령은 또래 사이에서 항상 대장역할을 하였다.

웨슬리안여자학교는 전형적인 남부 초등학교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을 중요시하였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학교였다. 학교는 송미령이 학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청년교사인 메기 버크스와 루시 레스터를 보내어 개인 과외를 하도록 하였으며, 버크스양의 어머니와 영어교사 버크스부인은 미령의 개인 생활을 돌보아 주었고, 그녀를 위해 옷을 만들거나 신발을 사주었다. 개인 과외는 미령을 결코 구속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다. 한 번은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미령이 갑자기 야외활동을 하고 싶어 하였고, 일방적으로 선생님에게 수업을 마치자고 하더니 밖으로 뛰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미령은 개인 과외를 통해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

송 씨 집안 3자매의 옷은 매우 특별했다. 대부분 미국식 옷을 입긴 했지만 그녀들의 옷은 대부분 상해에서 온 중국 비단으로 재봉한 옷들이었다. 자매들은 자신들이 좋아했던 중국 풍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송경령과 송미령 두 사람만 있을 때에는 중국식 치파오(旗袍)로 옷을 갈아입어 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미령의 방에 들어올 때면, 미령은 부랴부랴 벽장 안으로 들어가 평소에 입던 서양식 옷으로 갈아입은 후 다시 나오곤 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송미령은 일찍 성숙한 편이었다. 그녀는 많이 활발했고, 치장하는 것도 좋아했다. 나쁜 장난도 종종 치곤했지만 그녀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그 상황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무마시키곤 하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볼 터치나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매우 문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송미령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루는 미령이 중국의 분을 칠하고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오 마이 갓! 미령.”

나이가 미령보다 몇 살 더 많은 동급생이 놀라며 소리쳤다.

“화장한 것 같아! 볼 터치도 하고 빨간 립스틱도 발랐네!”

“그래.”

송미령이 대수롭지 않은 듯 힐끗 쳐다보면서 태연스럽게 “중국의 것을 바른 거야!” 라고 말하였더니 머쓱해하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송미령이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미령과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가 학교에 입학했고, 학교는 이렇게 3명의 여자아이들을 모아 비공식적인 반을 만들었다. 송미령의 리더십으로 그녀들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그녀들은 나이가 어려서 상급생들이 만든 사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세 친구’라고 불렀다. 이들은 스스로 규정을 정하였다. 또한, 구령이나 비밀암호 그리고 규칙도 정하였다. 예를 들면,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에는 껌을 씹으면 안 된다’와 같은 것들이었다.

‘세 친구’는 신문을 발간했다. 송미령은 책임자로서 글을 편집하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미술 편집과 기자 업무를 맡았다. 이 신문은 매일 5부씩 발행하였고, 내용도 모두 달랐다. 예를 들면, 한 칼럼 면에는 이렇게 쓰기도 하였다. ‘학교 안에서 패티 브라운만큼 예쁜 여학생은 없다’, ‘도로시 디어는 전교생 중에 가장 똑똑한 소녀이다.’ 라는 것들이다. 한 부당 5센트에 팔았고, 매일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매번 돈이 생기면 ‘세 친구’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열굴이 빨개질 정도로 다투곤 하였다. 한 친구는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자고 하였고, 다른 한 친구는 땅콩과 사탕을 사먹자고 하였다.

한번은 그녀들의 신문이 대단한 성과를 낸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동부의 한 대학교학생들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3명의 소녀가 독특한 신문을 내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 신문을 한 부 얻고 싶으며, 그것을 미국의 가장 어린 소녀들의 신문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을 받고 ‘세 친구’는 매우 기뻐다.

“우리 빨리 이것을 보내주자!”

그중에 한 소녀가 지체하지 않고 말하였다.

“안돼.”

미령이 상당히 심각하게 말하였다.

“그들은 5센트를 내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보내주면 신문의 가치가 너무 없어
저버리잖아?”

“맞아! 우리는 돈을 받아야 해!”

미령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여 편지를 한 통 쓰게 되었다. 그들에게 이러한 심
각한 문제를 제시하고, 5센트의 신문 값을 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편지
를 붙이느라 2센트를 이미 써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5센트를 보내 왔고, 소녀들은 그제야 신문을 붙여주
었다. 하지만 그녀들은 신문을 붙이느라 또 2센트를 써버렸다.

몇 년이 지난 후 송미령은 영국 문학을 전공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의 특별지
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보통 반에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10살에 디킨스의 모든 저서를 읽었고, 학업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1912년, 15
살의 송미령은 정식으로 대학 신입생이 될 수 있었다. 1년 후 둘째 언니 경령의
졸업 귀국 때문에 혼자된 미령은 웨슬리안여학교를 떠나야 했고, 동북부의 웰즐
리여자대학교로 편입해야 했다.

웨슬리안 여자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송미령은 여전히 그곳을 모교이자
고향과 같이 생각했고, 이곳에서 그녀는 4년간의 어린 시절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송미령은 웨슬리안여학교를 많이 그리워했다. 1965년,
다시 모교를 찾아갔을 때, 교회에 가까운 송미령은 웨슬리안여학교에서 받았던
많은 교육들을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서, 나는 4년의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고상한
기질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정직한 인성, 그리고 지식을 탐구하는 정신과 같
은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러한 개념과 이상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 체계적인 서양교육을 받다.

송미령은 미국에서 1908년부터 1917년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과

정을 마스터 하고, 전반적인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된다. 그녀 스스로도 ‘나는 얼굴만 동양인이야.’ 라고 할 정도였다. 그녀는 사교활동에서 활발한 성격과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고, 비범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재능을 보였다. 1918년, 송 씨 가문의 기틀을 세운 송요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1) 웰즐리여자대학교의 졸업생

1913년 봄 학기 말, 송경령은 중국으로 돌아갔고 웨슬리안여학교에는 송미령 혼자만 남게 되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오빠 송자문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 송미령은 그 해 가을 매사추세츠의 웰즐리여자대학교의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다.

송자문은 송 씨 집안의 세 번째 자녀이자 장남이었다. 자녀교육을 중시하였던 송요여는 송자문에게 특히 각별했으며, 송자문의 교육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였다. 1912년, 송자문이 상해 세인트존스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중국어와 영어실력은 이미 매우 훌륭한 상태였다. 게다가 지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어연설도 매우 잘하여 미국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곤 하였다.

졸업 후, 송요여는 그를 세계적인 명문대인 미국 하버드대학교로 보냈고, 경제학을 전공하도록 하였다. 하버드에 입학한 후에도 송자문의 모든 성적은 매우 훌륭했다. 기초가 좋았기 때문에, 송자문은 모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취미와 같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60%만 노력해도 100%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15년, 송자문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그는 미국국제은행에 입사하였고,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청강을 하며 경제학 박사학위도 준비하였다. 송미령이 편입하였을 때, 송자문은 하버드 2학년생이었고, 웰즐리여자학교의 문서기록에 의하면 그는 송미령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한다.

1학년인 송미령은, 학교 부근의 웰즐리타운에서 살았다. 막 입학했을 때, 그녀는 이 학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교장을 찾아가 단호하게 말하였다.

“아! 제 생각에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고, 이후 웰즐리타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곳은 정말 황홀한 곳이었습니다. 무성한 나무와 흰 트인 시야 그리고 구불구불 길게 나 있는 화단이 매우 매력적이었죠 .”

송미령은 매우 빠르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공부했으며, 광범위한 사교활동과 체육활동을 가지며 교내에서 큰 활약을 보였다. 그녀는 명함에 미령 올리브 송이라고 적었고, 그 중의 올리브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 붙인 이름이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안으로 이사하여 그 곳 우드리에서 졸업할 때까지 살게 되었다.

송미령은 웰즐리여자학교에서 1913년부터 1917년 여름까지 4년의 대학생활을 보냈고, 둥근형의 얼굴에 자태가 곱고 매력적인 아가씨로 자라났다. 그녀는 글래머러스하고 건강미 넘치는 여성이 되었다. 윤기가 흐르는 긴 땅은 머리를 늘어트리면 그 자태가 매우 고와 남자들의 혼을 쏙 빼놓곤 했다. 그녀는 매우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하여 동급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그녀가 매우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총명했고 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생활 4년 동안 그녀는 영국 문학을 전공하였고, 특히 아서왕의 전설을 좋아했다. 복수전공으로 철학, 프랑스어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였고, 선택과목으로는 천문학, 역사학, 식물학, 영어작문과 성경사와 강연술을 전공하였다. 그 외에도 1916년 여름, 그녀는 버무트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기도 하였다. 4학년 때 그녀는 듀란트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당시 학교가 학생에게 주는 최고의 학술명예상이었다.

송미령의 체육성적은 보통 수준이었다. 수영과 테니스를 좋아했고, 그 이외에는 반에서 농구팀으로 활동하였다. 그녀가 체육활동에 참가할 때는 항상 세일러복 상의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실크 몽구바지를 입었다. 어느 해 부활절에 그녀는 글로스터부근에서 수영을 하다가 맹렬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같이 수영하던 여학생이 그녀의 머리를 잡아 해안으로 끌어냈고, 그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일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된다고 하였

다.

송미령은 특히 사교활동을 좋아하였다. 3학년 때에는 웰즐리지역내에서 사교성과 학술성을 갖춘 T. Z. E라는 동아리의 일원이 되어 음악과 예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웰즐리여자대학에서 미령과 매우 친숙하게 지내던 교사는 미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한다. 이 문서는 학교의 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다.

내 기억에 송미령은 매우 재미있고, 또한, 내재적인 에너지를 갖춘 사람이었다. 우리가 늘 칭찬한 것처럼 그러한 감정적인 여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사람들은 그녀를 매우 얌전한 여성으로 생각했다. 그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독립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든 항상 골똘히 생각했다. 그녀는 늘 질문을 던지곤 했는데, 몇몇 개념의 정의에 대해 물었다. 예를 들어 첫 날에는 문학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고 기성의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도덕 문제를 깊이 생각하였고, 스스로 도덕의 기준을 몇 가지 찾아내기도 했다. 그녀는 진리추구에 집착하였고, 예전에 잘못된 구습을 주입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몹시 분하게 생각했다.

내 기억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총명하고 유쾌한 면모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주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그녀가 싫증을 느낄 때 확실히 매우 우울해 했고 무심결에 그러한 것들을 드러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고, 그것은 그녀에게는 매우 큰 문제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와 자문이 모두 그렇다고 느꼈다. 귀국하게 되면 닥치게 될 낯선 세계와 이미 적응하기 어려워진 중국 국내의 생활이 앞으로 그녀에게 다가올 문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매우 곤혹스러워 했다. 비록 그녀가 사교성이 좋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녀의 태도는 조금 냉담했고, 항상 우리를 무시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비평을 가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였다. 그녀는 자신을 조금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곳의 동양인 학생들은 남녀를 속박하는 중국의 오래된 도덕규범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다양하고 거대한 세계에서는 외부인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젊은 남녀들이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것에 대해 미령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녀를 흠모하는 사람도 많았다. 두 언니처럼 예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만의 열정과 사람을 끄는 진실성 그리고 내재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인기의 비결이었다.

그들(송미령과 송자문) 간에는 진정한 유대감이 있었다. 미령은 오빠의 말을 잘 들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가르침을 바랐다. 미령은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가족에게 복종하는 의식이 상당히 짙었다. 그녀는 매번 그녀의 언니들과 아버지를 이야기하였고, 항상 자문을 이야기하였다. 때로는 그녀의 어머니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두 남동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08년부터 1917년, 송미령은 미국에서 10여 년을 공부하였다. 이 10년은 그녀가 아이에서 청춘의 황금시기로 들어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송미령의 모든 교육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송미령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녀는 어린 소녀였고 학습과 모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기였으므로, 생활 습관과 행동거지 그리고 언행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두 미국화 되었다. 그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역시 모두 미국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었다. 그녀가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러한 말도 있었다. '나는 얼굴만 동양인이야.' 그녀의 한 미국 친구는 심지어 사진만 보면 그녀의 얼굴조차도 동양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송미령은 근원을 망각하지 않았고, 동양문명과 그 문화 유적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 웰즐리여자대학교에 있을 때 그녀 숙소의 벽에는 동양의 보검이 걸려 있었고, 이 섬뜩하게 빛나는 보검의 칼을 뽑아서 휘둘러보기도 하였다. '이단 중국인'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던 한 1학년 여학생은 이 무기를 보고 매우 놀랐고, 송미령의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도망가듯 뛰어가곤 했다.

미국 학교의 여학생으로서, 송미령은 튼튼한 미국의 신발을 신고, 다른 학생들처럼 미국의 치마를 입었다. 이는 당시 전족을 한 여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색과 광택이 분명한 비단을 자신의 짧은 외투나 재킷 위에 꿰매어 중국인의 특색을 남기거나, 자매들끼리만 있을 때는 중국의 치파오를 입어 보기도 하였다. 그녀들은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중국인 고유의 특성을 간직하려 하였다.

웰즐리여자대학의 한 음악선생님은 송미령이 중국의 문화 및 그 유산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감정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깊어졌고 중국의 문화와 예술에 자신감을 느껴갔다고 하였다. 한 번은 송미령이 영어선생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세계문명에 위대한 기여를 했고 서양세계가 이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이다.

송미령은 중국의 봉건예교와 오래된 전통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송미령은 송 씨 형제 중에 미국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받은 자녀였고, 미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 미국교육을 받은 것 이외에도 그녀는 여행을 하거나 미국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얻게 되는 배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송미령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미국의 방방곡곡을 다녀 보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를 다 가 보았죠.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아버지의 친구들과 함께 다니거나 나의 친구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현지에서 낯고 자란 미국인들일지라도 그녀만큼 미국인과 미국을 잘 이해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이해는 이후 장개석이 연미항일과 연미반공의 정책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장개석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아 장개석 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송요여가 자녀들을 모두 유학 보낸 이유는 그들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였으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신문을 스크랩하여 보냄으로써 그들이 국내정세를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은 헛되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조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당시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은 송미령에게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특히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연이어 손중산의 비서가 된 이후부터는 중국정국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중화민국이 시작될 무렵의 중국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원세개(袁世凱)가 신해혁명의 성과를 탈취하고 손중산을 대신하여 중화민국의 총통이 되었다. 야심이 가득했던 원세개는 독재를 일삼았고, 송교인(宋教

仁)을 암살하였으며 국민당계 도둑들을 파면하였다. 손중산은 제2차 혁명을 일으키고 공개적으로 원세개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스스로 황제라 칭하는 자 모두 함께 처벌하자”

원세개는 제2차 혁명을 참혹하게 진압하였고, 공개적으로 황제라 칭하였다. 그러나 반대했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과정 중에 원세개가 세상을 뜨면서, 중국은 또 한 번 군벌전쟁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타국에서 오래 생활해오던 젊은이라면 그 사상과 감성이 매우 복잡해지기 마련이었다. 국내의 혼란한 시국에 직면하여 열정적으로 분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낙후되고 혼란한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졸업이 다가와 미국친구들이 축하를 해주어도 송미령과 오빠 자문은 귀국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귀국을 미룰 생각도 하였다.

1917년, 송미령은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의 웰즐리여자대학의 학업을 마쳤다. 7월, 아버지의 재촉 하에 그녀는 매우 유창한 미국남부의 영어발음을 구사하면서 상해로 귀국하였다. 그때 송씨 집안은 상해 프랑스 조계지의 하비로(霞飛路)의 새로 산 작은 건물에서 살았다.

그들이 귀국하기 얼마 전 송경령과 손중산의 혼사로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났었다. 송요여 부부는 매우 크게 상심하였고 슬픔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곧 아들과 막내딸이 귀국하여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도 모친 예계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중국식과 서양식을 겸비한 잔치상을 준비하여 멀리서 오는 자녀들을 정성스레 맞이하였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 송경령만 없었다. 송경령의 결혼은 벌써 2년 전의 일이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둘째 딸을 용서하지 않았다. 송미령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식사를 끝낸 후 송요여는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딸을 위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오랜만에 집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었고, 송미령 역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함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2) 중국 곳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다.

10년의 미국생활은 송미령을 동양의 피부와 얼굴만 가진 미국인으로 만들었

다. 막 상해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주위의 생활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까다로운 시선으로 중국의 여러 가지 낙후된 모습과 동포들의 우매함을 지적하였다.

“아, 미국에서는 이렇지 않았어.”

이는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숙소 역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으며, 방이 너무 작아 파티를 열기에 불편하다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께 왜 더 크고 좋은 집을 사지 않는지 물었다. 송요여의 사무실을 본 후 그녀는 송요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뒤떨어졌어요. 현대화된 사무실과 욕실이 있어야 해요.”

송요여는 딸의 이러한 태도에 놀랐고 상심하였다. 딸이 이렇게 미국인의 어투로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비난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송미령이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도록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 친구가 송요여에게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도 될지에 대해 물어왔다. 그는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들을 유학 보내지 말게나. 애들이 돌아오면 무엇이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뒤엎으려 할 것이야.”

귀국 초기에 송미령은 생활에 익숙지 않았지만,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였다. 중국에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녀는 여전히 서양식 옷을 즐겨 입었고 중국의 옷은 싫어하고 불편해 했다. 하지만 점차 서양식 옷을 벗고 중국식 옷을 입기 시작했다. 중국옷을 입기 시작하긴 했지만 전통의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서양의 디자인을 넣은 매우 세련되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당시에 중국 젊은 여자들은 통으로 된 상의를 입었고, 치파오 역시 통자 모양이었다. 송미령은 서양의 습관에 따라 허리 부분을 몸에 딱 맞게 재단하였다. 그녀는 모자 쓰는 것을 즐겼고, 특히 승마복을 입을 때는 챙이 넓은 우아한 모자를 자주 썼다. 그녀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짧은 상의와 바지를 입은 여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송미령은 점차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언어에서 그러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해온 10년의 해외 생활로 중국어에 대한 생

소하게 느꼈다. 그래서 귀국 후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중국 교사를 찾아 중국어와 중국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유아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고 천성적으로 총명했던 까닭에 송미령은 매우 빨리 상해사투리를 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중국어의 이해력과 읽고 쓰는 능력은 부족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중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송미령이 구한 선생님은 늙은 학자였다. 송미령에게 중국 고전 시를 읊어 줄 때마다 항상 머리를 흔들며 눈을 감았는데 마치 아이들이 서당에서 책을 읽는 것 같았다. 그의 영향으로 송미령은 중국 고대시와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 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읊으면서 몸을 흔드는 습관이 생겼다. 여러 해의 부단한 노력으로 송미령의 중국어 표현능력과 작문 수준이 높아졌고, 유창하게 중국어로 연설과 담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서양화'되었다고 보수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을 면하게 해주었고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를 받게 해주었다. 이후의 발전과 성공으로 보았을 때 중국어 과외는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올바른 결정이었으며 이 결정을 재촉한 것은 그녀의 부모였다. 항전 시기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송미령은 강연 중에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려서 미국에 가게 되었고 10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하여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힘과 재능으로 국가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나를 타국에 오랫동안 보냈지만, 중국의 역사와 문학을 먼저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역사문화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기여를 원하든지 중국사회의 기초적인 조직과 요구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은 헛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송미령은 부모님의 진심어린 훈계와 간절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 후 그녀는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말들은 사람들에게 널리 인용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재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송요여 부부의 각별한 교육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귀국 후 송미령은 활발한 사교활동을 가졌고, 사회 공익사업에도 관심을 갖으

며 매우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상해의 몇몇 학교에서 그녀에게 교육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녀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많은 시간을 공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업무에 쏟았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기독교 여성청년회 활동에 참가하였고 전국 영화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상해시 참의회는 그녀를 소년노동자위원회로 초청하였고 그녀는 첫 여성위원이자, 첫 중국인위원이 되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몰랐던 이 젊은 여성에게 이 일은 중국소년노동자의 생활을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매개체와 같았다. 그녀는 소년노동자들의 영양부족, 초점 없는 눈빛, 오랜 긴장으로 인한 체력부진과 같은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송미령의 주된 힘은 사교활동에서 나왔으며, 매우 빠르게 상해 상류사회 사교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었다.

상류사회의 사교집회에서 그녀는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행동거지가 우아하여 송 씨 집안 내에서 주최하는 모임이든지, 그녀가 참가한 친구들의 모임이든지 그녀는 항상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활동 중에 그녀는 그녀의 정치적인 기질과 사회적 능력을 보이게 된다. 아버지 앞에서도 그녀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 중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였다. 송미령은 강권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재 민심이 매우 흐트러져 있고 사상이 일치되어 있지 않아 강력한 인물이 나와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강대한 정당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또한, 당원들의 절대적인 복종만이 전 사회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또한, 강대한 군대로 군인의 기율성명을 이루어 장애들을 없애고 또한, 거대한 재력이 뒷받침된다면 이러한 이상이 더욱 확실해 질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미령의 견해는 송요여의 주장인 민주사상과 반대되었다. 송요여는 이렇게 말하였다.

"셋째 딸은 보통 남성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매우 용기 있고 뛰어난 여성이지만 사람들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3) 아버지와의 고별

송요여와 송미령 부녀는 사상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부녀의 정은 매우 돈독했고, 가족들 사이도 화기애애했다. 하지만 하늘의 일이란 알 수 없듯이 사람에게 재난과 행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1918년 초, 송요여의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 점점 야위어갔고 위의 통증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송미령은 모든 사교활동을 멈추고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딸로서의 효도를 다 했다. 송가는 외국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송요여의 병은 미국 친구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1918년 봄, 줄리안 칼 장군은 상해를 방문하여 병상의 송요여를 특별히 찾아왔다. 송미령은 아버지를 도와 친구이자 은인인 줄리안 칼을 맞이하였다.

칼은 미국에서 장군직을 그만두고 섬유계의 거부가 되었다. 또한, 매우 관대한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였다. 이전에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송요여는 칼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후 그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1905년부터 1906년까지, 송요여는 북미에 가서 손중산의 동맹회를 위해 200만 달러의 경비를 모았는데 그중에 상당한 금액이 칼에게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중국 방문은 송 씨 집안뿐만 아니라 혁명당원들에게도 크게 환영할 일이었다.

손중산과 송경령은 프랑스 조계지의 주택에서 칼 장군을 맞이하였고, 두 번이나 직접 연회를 개최하여 그를 초대하였으며 진심어린 말로써 중국혁명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였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 송미령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적지 않은 혁명당원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색채가 가득한 교류활동은 송미령에게 사업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하였고 둘째 언니 경령에게도 ‘영웅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라는 말을 남기게 된다.

아버지의 병이 심각해지자 송경령 역시 여러 번 전화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지만 송요여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송미령은 중간에서 빙빙 맴돌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인 예계진은 병마에 시달리는 남편을 보고 매우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수 십 년의 곤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여 함께 살아왔던 남편의 손을 언제 놓아야 할지 몰랐고, 인간 세상 그 어떤 사람과의 이별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하여 예계진은 둘째 딸 경령에 대해서

도 점점 너그러워졌다.

송요여 역시 어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자식을 다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사실 그는 일찍부터 둘째 딸을 용서하였지만, 체면이라는 문제가 있어 단지 딸을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미묘한 태도는 그해 봄 줄리안 칼이 상해로 송요여를 만나러 온 후 바뀌기 시작하였다. 오래된 친구의 설득으로 송요여는 끝내 마음을 누그러트렸고 부녀의 오랜 벽이 무너져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세 자매는 함께 송요여의 병상을 지켰다.

안타깝게도, 송요여의 병이 빨리 퍼져 위암 말기에 이르게 되었다. 1918년 5월 3일, 어두운 먹구름이 온 집안을 뒤덮었다. 그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쯤, 이상하게도 그의 정신이 아주 잠시 또렷해졌었다고 한다. 그는 끝내 두 가지 일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였다. 하나는 두 어린 아들인 자량과 자안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송미령의 혼인이었다. 그는 총애하던 막내딸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 그녀의 천재성은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며 그래서 그는 그녀가 친구들을 고를 때도 신중하도록 하였다. 송요여는 아내와 아이들의 슬픈 울음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였다.

가장 송요여의 죽음으로 가족전체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송 씨 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4명의 송가 자식들이 학업을 마친 상태였고, 몇몇 사업에서 이미 양호한 시작을 보이고 있었다. 감정상의 거대한 타격은 오히려 그들을 분발시켰다. 장례가 끝난 후, 세 자매는 각기 자신의 길을 갔고, 독립적으로 생활의 도전들을 맞이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호법운동(護法運動)이 일어나고 있었다. 손중산이 광주로 가야하자 송경령은 남편을 따라 남하하여 혁명에 참여하였으며, 송자문이 그녀와 함께 하였다. 송애령 역시 공상희(孔祥熙)를 따라 천진으로 돌아갔고, 송미령만이 집에 남아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부친이 죽은 후에 송미령은 얼마간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열정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회활동과 일에 임했다. 손중산이 광주에서 입지를 굳히게 되면서 송미령은 남부와 북부에 머무는 시간을 비슷하게 조율하였다. 당시 남북은 서로 다른 정권 아래에서 남쪽은 남쪽대로 또 북쪽은 북쪽대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남부는 매우 활기가 있었으나, 북부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이러한 선명한 대조하에 송미령의 정치견해는 한층 더 성숙해져 갔고, 장

개석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확실한 견해를 정해 놓았는데, '공산주의'는 중국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겼으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2장

'영웅에게 시집가기'를 원하다.

송미령은 미국에서 낭만적인 첫사랑을 했고 귀국 후에도 많은 청혼자들이 있었지만 그녀의 바람은 '영웅과 혼인'하는 것이었다. 장개석(蔣介石)을 만나고 '늦게 핀 꽃'은 그제야 종착점을 찾게 되었다.

장개석(蔣介石)은 송미령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송미령에 대한 흥미를 떨쳐낼 수 없어 집요하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는 재능과 외모를 겸비한 송미령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쓰며, 세 명의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장개석과 송미령 사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 버렸다.

장개석은 세 명의 처와 첩을 모두 정리하고 송 씨 집안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넘으면서 송미령과의 결혼허락을 받게 되었다. 장개석과 송미령의 혼례는 두 번 거행되었다. 한번은 중국식이며 또 한 번은 서양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을 중국의 가장 호화스러운 혼례였다고 말하곤 하였다. 혼인 후에 송미령은 '중국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1. 머나 먼 구애의 길

송미령은 가장이 독단적으로 연애와 혼인문제를 정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혼례 방식을 싫어했다. 사상이 자유로웠던 송미령은 미국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첫사랑을 하였고, 이후 유기문과도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다른 '강

한 인물'을 찾았고, 감정과 이성중에 그녀는 후자를 택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당시 중국의 '영웅'이라 불리던 장개석(蔣介石)을 선택하게 되었다.

1) 낭만적인 미국에서의 연애

송요여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송요여 역시 이전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지만, 1915년 둘째 딸 송경령과 송요여의 친한 친구였던 손중산의 혼사로 송 씨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후 송요여는 송미령에게 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다.

송미령은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중국전통의 예교풍습이 매우 두려운 풍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언니의 혼인을 보고 그녀는 자신과 관계를 지으며 생각하였고, 앞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혼인에 간섭하여 경령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때 송미령은 이미 미국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송자문의 동창인 피터 리였다.

송미령이 웨슬리안여학교에서 웰즐리여자대학으로 편입한 주된 원인은 웰즐리여자대학이 오빠 송자문의 학교인 하버드대학과 가까워 서로 왕래가 편했기 때문이다.

송자문은 송미령보다 다섯 살이 많았다. 부모와 떨어진 타국에서 둘째 송경령이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자 송자문은 자연스레 막내인 송미령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이 되었다. 주말이 되면, 송자문이 교외에 있는 송미령의 학교를 찾아가거나 송미령이 하버드대학으로 가 오빠를 찾았다. 긴 시간이 지나, 송미령 역시 오빠와 친분이 있는 많은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중국 유학생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웰즐리여자학교는 전통을 매우 중시했고, 학생들 모두 세일러복을 입어야 했다. 매우 수려한 자태의 송미령이 교복을 입으면 많은 청년들이 녀을 잃고 쳐다보곤 했다. 우아한 기질에 뛰어난 기품을 갖춘 송미령은 하버드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의 많은 동양 대학생들의 마음을 샀다. 그녀의 친구의 기억에 의하면 항상 한두 명의 잘생긴 중국 청년들이 송미령의 숙소 근처를 맴돌곤 했다고

한다.

많은 청혼자 중에 강소성에서 온 하버드대학의 피터 리는 송미령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1914년 여름 주말 하버드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당시 송미령은 계단에 앉아 오빠 송자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주 잘생기고 멋스러운 사내가 송미령을 향해 걸어왔고, 비범한 기질에 사내다운 풍채로 송미령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고 한다. 또한, 송미령의 풍만한 몸매와 뛰어난 자태가 그의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따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서신을 보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여 주말에 같이 교외로 소풍을 가거나 미래의 아름다운 생활을 꿈꾸기도 했다.

사랑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고 자연스러웠다. 이는 송미령도 예상하지 못했다. 본래 그녀가 생각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영국문학을 공부할 때 그녀는 아서왕 이야기의 격렬한 전투장면을 좋아했고, 기사가 사랑하는 사람의 원수를 갚아 원수의 머리를 공주에게 가져다주면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것 역시 사랑인가?!

서로간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피터 리는 그녀에게 청혼하였다. 아마도 그는 송미령에게 이미 많은 청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약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송미령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쯤, 둘째언니 송경령의 혼인 문제를 모든 가족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경령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큰언니의 편지에는 부모님이 독단적으로 송경령의 혼인을 처리하려 하다 실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둘째 언니의 편지에는 자신은 결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편지를 읽고서 송미령은 매우 놀랐다. 정말로 둘째 언니가 어렸을 때 자주 집에서 보았던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바로 오빠 자문에게 이 일을 자세하게 알렸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서양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며 개성적이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고, 둘째 언니의 혼인에 대한 자유에 찬성하였고 또한, 부모님의 분노와 상심을 걱정하였다.

둘째 언니의 혼인문제는 현재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있는 송미령에게 강력

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미국의 중국 유학생으로서 송미령은 민주와 자유를 존중했고 중국의 독단적인 혼인 제도를 반대했지만, 그녀 역시 중국의 봉건예교에 맞서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송미령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여 결론을 냈고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여, 그 운명과 혼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약혼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전통적인 봉건 사회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송미령은 그녀와 피터 리의 사이에 대해 오빠 자문에게 수시로 이야기 하였고, 송자문은 전통적인 중국인들처럼 막내 동생의 혼인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조언과 지원을 해주었다. 그는 막내 동생에게 스스로 자존하고 자중하며 자강하라 했으며 특히 학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결혼 약속이 송미령의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는 그들을 헤어지게 만들었다. 송미령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고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송미령이 둘째 언니의 혼인에서 깨달은 것은 전통예교에 대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둘째 언니가 가족과 절교를 하면서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고 미령은 배우자 조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송미령이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자, 혼약은 더 이상 구습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 되었다.

송미령은 여전히 중국에서 온 많은 청년 유학생들의 구애를 받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해 재능 있는 청년들과 함께 교류하였다. 그러면서 그중에 이상적인 백마탄 왕자가 찾아와 주길 바랐다.

2) '강한 인물'의 남편을 찾다.

1917년, 송미령은 10년 동안 떠나 지냈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매우 단아하고 우아하며 아주 매력적이었던 송미령에게 많은 청혼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혼인문제에 있어 신중했다. 그녀는 둘째 언니 경령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영웅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

혼인문제에 있어 망설이게 되면서 그녀의 혼인은 지체되었으며, 스스로 '나는 늦게 핀 꽃이야.'라고 말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의 개념에 따른다면, 송미령은 이

미 노처녀였다.

남자가 성인이 되면 장가를 가고 여자는 시집을 가야 한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었으나 송미령은 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송요여는 매우 조급해졌다. 당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 송요여는 세 딸을 매우 아꼈고, 그녀들이 모두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다. 큰딸 송애령의 혼사는 그가 정성을 다해 알아보았고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예리한 안목으로 딸을 위해 산서의 부잣집 아들인 공상희를 찾아내었다. 공상희는 부를 이루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부에 대한 욕심도 많아, 국가의 재정을 넘어서는 부를 이루게 된다. 송애령이 가정을 꾸려 화목하고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송요여는 매우 기뻐고, 스스로의 안목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둘째 딸인 경령에게 같은 방법을 쓰려고 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는 평생 마음의 병이 되었다.

송경령은 송애령과 달랐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송경령은 부모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반대하였고, 자신의 감정에 따랐으며 손중산을 만나서 손중산의 비서가 되었을 때 자신 스스로 길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손중산의 생각을 마치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듯 이해할 수 있었으며, 손중산이 이끄는 중국혁명에 대해 많은 희망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일생을 중국민주혁명에 바치기를 원했다.

한 사람은 오십에 가까웠고 한 사람은 이십을 막 넘겼지만, 그들은 매우 화목했고, 이는 사업과 이상과 신앙의 결합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합은 송요여 눈에 배신으로 보였고 그는 동년배이자 자신이 존경하는 친구였던 이에게 딸을 시집보낼 수 없었다. 결국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이 혼인을 막으려 했다. 송경령을 방에 가두어 버리고 스스로 사위를 물색하러 다녔다.

송요여는 경령의 방문을 잠가버렸지만, 그녀의 마음의 문은 잠글 수 없었다. 송경령은 하녀들의 도움으로 창문을 넘어 몰래 도망 나갔고 그날 밤에 배를 타고 일본 고베로 건너가 손중산에게로 갔다.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인 1915년 10월 25일 손중산과 급하게 혼인을 하고 <혼인서약서>을 만들었다. 혼인이 끝난 후에 그녀는 아직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송미령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손선생님과 함께 중국혁명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대가와 희생을 치를 것이야!

송요여는 송경령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화를 냈고, 여객선 표를 한 장 사서 일본으로 쫓아갔다. 하지만 송경령을 만났을 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었고 그의 앞에는 생화에 오색 비단 끈을 지닌 신랑과 신부가 있었다. 분노한 송요여에게 손중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송경령이 해명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화를 더욱 돋우게 되었다. 송요여는 경령과의 부녀지간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 선언하였고, 매우 화를 내면서 돌아왔다.

매일 송경령의 혼사를 생각하면서 송요여는 매우 상심하였고 막내딸 송미령의 혼인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전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최대한 빨리 움직였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매우 바쁘게 막내딸의 결혼 상대를 물색하며 다녔다. 하지만 송미령이 내건 조건에 따라 집안 배경도 좋고 소양도 높은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의 혼인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송미령에게는 매우 불안한 것이었지만, 둘째 언니의 경험에서 교훈을 받아 아버지와 부딪히지 않고 '미루는' 방법으로 이에 응했다. 아버지의 사윗감 물색에 대해 그녀는 만남으로 답했지만, 사실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다. 여러 가지 기회를 빌어 송미령은 자신의 기준으로 '강한 영웅'을 찾았다.

얼마 되지 않아, 송요여는 별세했고 그의 죽음은 모든 가족에게 매우 큰 슬픔이었다. 하지만 송미령의 혼인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풍속에 따라 송미령은 이미 혼기가 꼭 찬 상태였다. 상해 상류사회에 많은 멋스러운 청년들이 그녀를 미친 듯이 쫓아 다녔지만, 송미령은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중매쟁이들과 대담한 구혼자들의 청혼을 거절하였다. 그녀는 찾고, 기다렸으며, 그녀가 원하는 일세를 풍미할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랐고, '강한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같은 그러한 평범한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

싶었고 그러려면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는 남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노력한 만큼 그녀는 그녀가 원했던 그러한 강한 인물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바로 장개석이었다.

사실, 장개석이 혼인을 청하기 전까지 송미령의 마음에 그 어떠한 바람도 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유기문(劉紀文)이란 바람이 있었다.

유명인들의 연애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 긴 시간 동안 화젯거리가 될 수 있다. 송미령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큰 화젯거리였다. 사람들 사이에는 유기문과 송미령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유기문은 송자문의 대학친구이고 송미령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나 약혼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송미령이 마음이 변하여 장개석의 청혼에 응했고 장개석은 유기문에게 경제적 보상으로 유기문을 남경특별시시장으로 추천하였다고 하였다.

소문이 매우 생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사실과는 많이 달랐다. 대만작가 왕풍(王豐)은 <아름다움과 슬픔>이라는 책을 통해 이러한 엉터리 소문들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첫째, 유기문은 일본에서 유학했고 1910년부터 1923년까지 손중산의 곁에서 혁명을 도왔으며 멀리 떠난 적이 없었다. 1923년이 되어서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그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 지역에서 행정을 견학한 정도였다. 송미령은 1917년 상해로 귀국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미국에서 만날 수 없었다. 둘째, 유기문이 귀국한 후 광둥성정부위원 겸 농공청청장에 재직하였고 북벌 당시 국민혁명군 총사령행령군수처처장 및 총사령부경리위원회주석, 회계감사처처장, 경리처처장에 재직했다. 여러 가지 사실들로 보아, 1927년 남경국민정부를 막 설립했을 때의 남경특별시시장은 이름뿐인 시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송미령이 정말 그를 추천하려 하였다면, 유기문의 권력이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송미령과 유기문간의 감정은 어떻게 된 일일까? 현재까지도 아직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없지만 단편적인 사실들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송미령은 1917년 귀국 후 유기문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모두 유기문이 송미령의 약혼자라고 생각할 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결혼 약속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유기

문은 매우 건장하고 위풍당당하였으며 국민당 내에 왕정위(汪精衛)와 함께 손에 꼽히는 미남이었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손중산을 따라 여러 해 동안 혁명도 하였다. 이는 수려한 외모에 정치적 포부까지 겸비했던 송미령에게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었지만 계속해서 송미령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다. 1922년 두 사람의 관계는 막을 내리고 헤어졌다.

1923년부터 1926년, 유기문은 유학을 갔고 송미령에게 사랑을 표하던 장개석의 명성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송미령과 유기문의 관계는 정리되었다. 북벌전쟁 당시, 유기문은 오랫동안 총사령부의 요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장개석이 바로 총사령관이었다. 장개석과 유기문 두 사람은 모두 손중산과 혁명을 함께 해왔으며, 당시에 그들은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고, 북벌전쟁 기간에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되었다. 장개석이 남경에서 국민정부를 수립하여 무한의 정권과 대항할 때 측근인 유기문에게 수도의 특별시시장을 맡아 달라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송미령의 비서를 맡았던 장자갈(張紫葛)의 기억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적지 않은 소문들이 있었고 송미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유기문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위원장을 알기 전에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였죠. 헤어진 후에 사적으로 왕래한 적도 없어요. 그와 위원장의 관계를 보면 한 사람은 관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재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3) 미녀를 쫓는 영웅의 '마라톤'

송미령과 장개석이 처음 만난 해는 1922년, 가문의 명성이 높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매우 우아한 '신여성'이라 불리던 그녀가 장개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장장 5년의 긴 시간 동안 한 영웅이 미녀를 쫓는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순조로운 삶을 살았던 송미령과는 다르게 장개석의 성장시절은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우울했다. 또한, 자주 곤경에 빠져 몇 번의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장개석은 송미령보다 10살이 많았고 1887년 10월 31일 절강성(浙江省) 봉화현(奉化縣) 계구진(谿口鎮)에서 태어났다. 8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왕채옥(王

採玉)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다. 서당에서 유가 전통 문화를 공부하였다. 16살에 청정부가 과거제도를 폐지하기 2년 전, 그는 학당에 들어가 신식교육을 받았다. 1907년 보정군교(保定軍校)에 입학하게 되고 2번의 일본유학으로 동경진무학교(東京振武學校)에서 군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장개석은 적극적으로 의형제인 진기미(陳其美)를 따라다니며 동맹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의형제를 통해 손중산 등 혁명당원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다. 스스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현실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사상과 행동은 한층 더 성숙해져갔다. 그는 호탕한 기개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읊은 적이 있다.

“기세등등한 살기가 전 세계에 가득하다. 힘이 남보다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광복의 중국은 내가 해야 할 일이며, 일본에 유학 온 것도 벼슬을 위한 것은 아니다!”

신해혁명 때, 장개석은 귀국하여 진기미를 따라 호항봉기(滬杭起義)에 참여하게 되며 그 후 원세개(袁世凱)에게 대항하면서 여러 번 일본으로 망명 가게 되었다. 1918년 장개석은 손중산의 연락을 받고 남하하여 호법투쟁에 참가하게 되며, 광둥군에 재직하여 매우 뛰어난 군사적 자질을 보이기 시작하여 손중산의 눈에 들게 되었다. 진형명(陳炯明) 역시 장개석을 특별하게 여기며 ‘광둥군이 승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칭하였다. 하지만 장개석의 난폭하고 고집스러운 성격과 광둥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둥군에게 차별과 배척을 받았다. 그는 1918년부터 1922년까지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차례 일을 그만두었다. 10년 동안 그는 상해탄에 들어 청방과 친분을 쌓았으며, 기생집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역사학자 황인우(黃仁宇)는 장개석의 10년간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는 떠돌이 협객과 혁명지사의 생활 사이를 오갔다. 전문가도 그의 행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1922년 6월 진형명과 손중산은 결별하였다. 광주에서 군사반란이 일어나 손중산은 영풍군함(永豐艦)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장개석은 이 소식을 듣고 상해에서부터 달려와서 그를 호위하며 해군의 지휘를 맡아 용감하게 반격하였다. 손중산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와 함께 상해로 돌아갔다. 장개석은 이때부터 손중산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송미령은 장개석을 알기 전부터 이미 여러 번 손중산이 장개석에 대해 대단한 인재라고 칭찬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1922년 12월 초 저녁, 송자문이 상해 막리애로(莫里哀路) 손중산의 숙소에서 지역사회기독교만찬을 주최하였다. 이때 송미령은 처음으로 장개석을 만나게 되었다. 송미령의 아름다움과 대범함 그리고 출중한 언행과 우아한 자태는 장개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혼자서 '나의 반려자는 오직 이 사람뿐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장개석은 당시, 손중산의 많은 추종자 중 한 사람에 불과했고 광둥군의 참모장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송미령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 10여 년 후, 송미령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의 환한 빛을 내는 눈이 나에게 그가 영웅임을 알려주었죠. 외모도 나의 둘째 형부보다 훨씬 멋있었죠"

그녀는 장개석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상해사투리로 그와 담소를 나눴다. 장개석의 요구 하에 두 사람은 서로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훗날 예부인의 생일날 송미령은 장개석에게 전화하여 그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하지만 송미령은 장개석이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친해질 가치가 있는 좋은 친구로만 여겼던 것이다. 오년 후, 장개석은 당시 자신은 송미령에게 마음이 매우 설렘고 아주 이상적인 반려자라 생각했지만 미령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다.

그해 말에 장개석은 손중산에게 처제 송미령을 소개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또한, 자신은 이미 아내 모복매(毛福梅)와 이혼을 했으며 두 번째 아내인 요야성(姚冶誠)과도 연을 끊었다고 하였지만 이제야 1년의 신혼을 맞이한 진결여(陳潔如)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중산은 장개석의 스캔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떠한 명확한 태도도 취하지 않았다. 단지 애매한 말투로 기다리라고만 했을 뿐이었다. 또한 이 말을 덧붙였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령의 마음인데, 그녀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으니 참고 기다려 보게나."

손중산은 이 일을 부인 송경령에게 말했고 송경령은 매우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아내가 없는 듯이 말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미령이가 죽는 것을 보겠어요!”

손중산은 송경령의 이러한 태도를 장개석에게 말하지 않았고 단지 의미심장한 말투로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개석은 손중산을 따라 광주로 남하하였다. 광동의 혁명기지에 뿌리를 세우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이 시기에 장개석은 소련에 3개월간 시찰을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하여 황포군교를 맡았고 광둥군의 참모장을 겸임하였다. 정치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장개석은 송 씨 집안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손중산이 별세하기 전에, 장개석은 두 번이나 혼사를 요청하였지만 매번 그에게 오는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장개석은 결코 이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

광주에 온 후에도 장개석은 계속해서 송미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녀의 재능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에 대한 애모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혼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송미령은 항전시기, 비서 장자갈(張紫葛)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답장을 썼다. 그의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살짝 돌려 표현하였고, 때때로 혁명도 논했다. 결국 서로 아끼는 마음을 전달했다.’

손중산이 별세한 후에 장개석은 여러 번 국민당의 연합과 분열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갔다. 1926년 6월, 장개석은 국민정부군사위원회 주석, 국민당중앙집행위원회 주석, 국민혁명군총사령을 맡았고, 거대한 권력을 얻게 되며 ‘강한 인물’이 되었다. 진결여가 항상 부인의 신분으로 동행하였지만, 장개석은 송미령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송미령의 형제들에게 혼사를 청하였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 송미령이 이 시기에 장개석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 7월 그녀가 북벌군총사령을 위한 연회에 나타났다.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벌군은 거침없이 진군하였고, 장개석은 국민들의 마음에 이미 큰 영웅이었다. 1926년 12월, 한 여성이 호적(胡適)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 한다.

나의 마음에는 두 명의 영웅이 있는데(여성들의 마음에 영웅이 없을 수 없다) 하나는 문(文)에 있고 하나는 무(武)에 있습니다. 문의 영웅은 말할 것도 없이 호적이며 무의 영웅은 장개석입니다. 이 두 사내는 우리 민족의 기둥입니다!

큰 정치적 포부를 가지고 줄곧 '강한 영웅'을 찾던 송미령의 정치적 감각이 자신을 쓴 여성보다 무딜 리 없었다. 그녀는 장개석을 만났을 때부터 쪽 손중산이 말한 '인재'를 지켜보고 있었다.

군사적으로 성공을 한 후, 왕정위(汪精衛)의 복직을 둘러싸고 장개석은 당내의 엄격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군사로 시작한 장개석은 자신이 당내에 명망과 관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로써 송가와의 혼인을 계획하게 되었다. 1927년 초, 구강(九江)에 있을 때 장개석은 자신의 정치적 혼인계획을 부인 진결여에게 말하였고, 그녀에게 5년의 시간을 자신의 정치적 계략을 위해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하고 남경에 정권을 세우면서 그는 점차 송미령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다. 1927년 5월, 송애령의 도움하에 송미령은 진강(鎮江)에서 장개석과 함께 금산(金山)과 초산(焦山)을 여행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져갔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송과 장 간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고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하게 되었다.

송미령을 알기 전에 장개석은 3번의 결혼을 하였는데, 본처 모복매(毛福梅), 첩 요야성(姚冶誠), 진결여(陳潔如)가 있었다. 진결여와의 결혼은 막 1년이 되어 혼인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장개석은 송미령을 보고 그녀에게 구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며, 강한 의지로 그녀와 혼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코 단지 송미령의 늘씬한 몸매나 예쁜 얼굴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장개석이 송미령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손중산의 신임을 얻어 그의 후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손중산의 신임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친인척, 즉 손중산과 동서지간이 되는 것이었다. 장개석은 친척관계가 중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대

공보 《大公報》 > 창시자 중 한 사람인 호림(胡霖)은 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였다.

장개석의 재혼은 심오한 계략이었고 주도면밀한 정치적 행동이었다. 그는 송경령과 송자문을 얻어 그들과 친분을 쌓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장개석 역시 서양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미령은 장개석이 서양인들과 교류할 때 그의 입과 귀가 되어주었다. 그 밖에도 그는 송자문의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탐냈다. 하지만 장개석이 송미령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장개석은 자신이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역사에서 영웅들은 미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장개석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 장개석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 전기 작가 스탈린 시그레이브는 <송가왕조>에서 장과 송의 혼인 내막을 이렇게 폭로하였다.

손중산 이미지의 중요성을 낮게 보아서는 안 되며, 대다수의 중국인은 그를 거의 신처럼 생각한다. 손중산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매우 드물다. 현재의 모든 정치적인 일과 기적은 손중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르는 곳마다 모두 그의 초상이 걸려 있다. 손중산과 아주 사소한 인연이 있던 정치인들이나 군관들조차도 모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정계인사들은 손중산의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려하였다. 여기에는 왕정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청방의 계략에 따라 장개석은 자신을 손중산의 후계자로 만들고, 손중산의 신성한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 했다.

송 씨 집안과 결혼을 하여 손중산의 신비로운 권위를 얻는 것만큼, 서양으로부터 정권이나 재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물질 지원을 받는 것 역시 중요했다. 청방은 그에게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북벌과 지방군벌의 흡수로 빠르게 군사통치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지만 사실 중국의 부를 전부 장악하지는 못했다. 북경이 공식적인 수도였기 때문에 장개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세수와 다른 중앙정부의 수입을 통해 그의 남경(南

京)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많은 돈을 군사토벌과 깡패를 고용하고 정치인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했고 그래서 강탈한 돈만으로는 부족하여 확실한 수입원을 만들어야 했다. 외부적인 지원만으로 그의 정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은 남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지원요소 중 하나였다.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경로가 바로 송 씨 집안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었다. 특히 송자문이 그러했다. 여기에는 외국인의 개인투자를 포함하여 해외정부의 지원도 있었다. 외국은행, 기업, 정부 및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 예를 들면 미국의 교회단체의 지원이었다. 이런 곳에는 모두 송자문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장개석의 목표는 중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강대한 군사력과 두터운 경제력을 필요로 했다. 송미령의 오빠 송자문은 이제에 아주 능했으며 송미령의 형부인 공상회는 유명한 재벌이었다. 만약 송가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장개석의 성장은 더욱 유리해 질 수 있었다.

2. 처와 첩과 이혼, 그리고 미령과의 혼인

송미령을 알기 전에 장개석은 이미 세 번의 혼인을 했다. 송미령과 혼인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구혼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장개석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모복매와 이혼했지만, 모복매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또한 장개석은 첩 요야성과 별거하며 진결여를 출국시킨다. 이리하여 세 명의 부인과 첩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1) 집을 떠나지 않는 모복매의 이혼

송미령의 허락이 있는 후 장개석은 세 명의 여인들과 관계를 정리해 나갔다. 1927년 8월 13일 그는 일보후퇴를 선택하여 하야를 선포하고 봉화의 본가로 돌아오게 된다. 이 기회로 그는 모복매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다.

모복매는 장개석의 본처이며 1882년 태어나 1939년 죽었다. 19세에 장개석의

집으로 들어와 45세에 이혼당했으며 그녀와 장개석의 부부관계는 26년 정도였다.

모복매와 장개석의 혼인은 양가 집안의 가장이 주선하여 구식 혼인으로 이루어졌다. 모씨는 전족을 한 전통여성으로 장개석보다 나이가 많았고 외모도 그리 수려하지 않았다. 결혼한 후에 부부의 정도 그리 좋지 않았으며, 장개석은 그녀에게 냉담했다. 다행히도 모복매는 넓은 마음과 온순한 성격의 '큰 누나'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남편을 돌보아 주었다. 내조를 잘하였고 성심성의껏 장개석의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았다. 효심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왕채옥의 사랑을 받았다. 장과 모, 두 사람에게는 장경국이라는 아들이 생겼다.

1921년 6월, 장개석의 모친 왕채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모복매는 명실상부한 풍호방(豐鎬房)의 안주인이 되었다. 대외적인 일에는 총관이 있고 내부적인 일에도 회계담당이 있었지만 모복매는 모든 일에 일일이 관여하여 장 씨 가문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장개석의 모친이 죽은 후 모씨는 가장 강력한 의지 상대를 잃게 되었고, 본래 이러한 구식혼인에 불만을 가졌던 장개석은 더욱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11월 장개석 모친의 장례가 끝난 후 장개석은 정식으로 모복매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요야성 다음으로 장개석은 상해에서 진결여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장개석의 모친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이미 동거 중이었지만, 장개석은 모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장개석의 모친이 죽고 나서는 더는 꺼릴 것이 없어졌다. 그는 모복매와 장경국(蔣經國), 야요성과 장위국(蔣緯國)을 불러 이혼에 관한 그의 계획에 대해 말하였다. 그 후 모복매의 둘째 오빠인 모무경(毛懋卿)에게 편지를 써서 모복매와의 이혼에 대해 말하였다.

모복매의 단호한 거절과 고향친지들의 반대로 장개석 역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단지 새로 맞이한 부인이었던 진결여의 비위를 맞춰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이혼 얘기를 꺼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행동은 없었다. 진결여가 이 문제에 대해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자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하지만 곧 장개석과 진결여의 사실혼관계로 인해 모복매는 장개석과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녀는 묵묵히 고향으로 내려가 집안을 돌보며 지냈다. 1927년 장개석이 중국 정치무대의 중심에 오르자 송미령에게 구혼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장개석은 이전의 모든 혼인관계를 없애야 '장개석과 송미령의 혼인'을 이룰 수 있었다. 장

개석은 다시 한번 어린 시절 결혼했던 모복매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상당한 골칫거리가 되었다.

장개석은 매우 효자였고 모복매는 왕채옥이 직접 주관하여 정식으로 맞아들인 며느리였다. '조강지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옛 규범도 있고, 모복매는 아들까지 낳았으니 더욱 명분이 있었다. 모복매는 장개석의 집으로 들어와 몇 십 년 동안 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며, 여러 차례 장개석의 외도도 참아왔다. 장개석도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긴 하였지만 그는 또 다시 모복매의 양해를 바랐다.

장개석은 가장 먼저 봉화현장(奉化縣長)에게 '부인과 이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 후 직접 계구로 돌아와 모씨에게 이혼수속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중재를 위하여 장개석의 큰 형 장개경(蔣介卿)은 장개석을 대신하여 모복매 및 모씨 집안과 상의하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모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절대 장가의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모씨 집안 역시 태도가 명확했다.

"복매는 이미 출가외인이며 이미 얹어진 물입니다.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갔으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장가 사람이며 죽어도 장가의 귀신이어야 합니다!"

일은 매우 시끄러워졌고, 장개석은 모복매 및 모씨 일가에서도 존경을 받는 손금풍(孫琴風)을 모셔다가 두 개의 담보를 가지고 이혼협의를 이루어 냈다. 명분상 이혼하는 것과 이혼해도 집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풍호방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장경국은 그의 직계상속인이며 모씨의 이름하에 기록되는 것이었다. 모복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서류에 서명하게 되고, 봉화현정부는 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다. 1927년 9월 28일, 29일, 30일 3일 동안 장개석은 상해<민국일보 《民國日報》>등에 <장개석 집안 사 공고>를 올렸다.

각 동지 여러분 중정(장개석)의 집안 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심을 갖는 분이 많은데, 다시 한 번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중화민국 10년, 본처 모씨와 중정은 정

식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다른 두 처와는 본래 혼인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중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이입니다. 현재 2명의 아들 외에 딸은 없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커지고 혼란스러워져서 특별히 공고를 올립니다.

장개석은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고 송미령을 새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

장과 모는 협의 하에 이혼하였고 모복때는 손금풍에 의해 소왕(蕭王)사당에 잠시 머물게 되며 장과 송이 상해에서 결혼식을 올리자 모복때는 다시 풍호방으로 돌아왔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생활비는 장개석이 지원하게 되었다. 명절이 되어 친척왕래나 풍습을 행할 때 모두 모씨를 본처로 하여 진행되었다. 모씨의 이러한 특별한 지위는 장개석의 넓은 아량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씨 스스로 얻어낸 성과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공인된 현모양처였으며 남편을 섬기고 아들을 돌보며 모든 예를 갖춘 모범적인 안주인이었고, 장 씨 가족들의 존경을 받았다. 모씨는 제계와 염불을 하며 선행을 나서서하였다. 또한, 도로나 길을 만들고 다리를 구축하고 평조(흉년에 쌀값이 오를 때, 정부가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비축미를 정상가격으로 방출하여 판매하는 것)하고 이재민을 구하여 고향 이웃들의 찬사를 받았다. 장개석이 정도 없이 그녀를 떠나갈 때 계구 고향 사람들은 장개석을 못마땅해 했다.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모두 그를 욕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사람의 정이 법보다 중요했고 모복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여전히 장개석의 본처이자, 풍호방의 안주인이었다.

1928년 장개석은 처음으로 새 부인 송미령을 계구의 고향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조들을 뵙게 하였다. 모씨의 비난과 어색한 만남을 피하기 위해 장개석은 장개경에게 먼저 풍호방에 가서 동태를 살피도록 하였으며, 송미령에게 인삼과 모피옷 등을 모씨에게 보내 예를 보이도록 하였다. 모복때는 앞으로 닥쳐올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였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 대처하였으며 풍호방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후에 장개석과 송미령은 악정(樂亭)에서 지냈다. 그들이 계구에 머물 때 모복때는 매일 풍호방에 요리사를 불러 장개석이 평소에 좋아하던 고향음식을 만들어 악정에 보내도록 하였다. 닭고기토란스프, 말린 채소와 절인고기 볶음 그리고 '말린 쌀미음'이었다. 이 요리는 찹쌀을 잘 익혀 가늘게 간 다음 닭기름과 참기름, 후추와 죽순 그리고 지단과 물을 넣어 함께 끓인 것으로

차게 해서 먹으면 맛이 좋다.

송미령은 평소에 서양식을 먹었는데 이곳의 음식을 먹어보고는 입맛에 맞았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에는 한 하녀가 매우 기쁜 모습으로 뛰어와 모씨에게 말하자, 모씨가 매우 좋아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이 시골을 떠나 돌아갈 때 쯤 그녀는 가장 좋은 토란을 골라 송미령에게 가져가게 하였다. 송미령이 남경공관으로 돌아와 요리사에게 토란을 요리하도록 하였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바로 뱉어버리고는 연속해서 "아니야, 아니야."라는 말만 하였다 한다. 장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토란은 맞아요, 요리법이 맞지 않은 것이죠. 닭고기 토란스프는 고향 풍호방의 특별한 요리법이죠. 보통은 이 맛을 내기 어려워요."

후에, 장이 비행기를 보내 영파(寧波)로 가서 풍호방에서 요리한 토란을 가져오게 하였고, 남경으로 돌아와 송미령에게 마음껏 먹도록 하였다.

이후 장이 혼자 고향에 가든지 송미령과 함께 내려가든지 모두 별장이나 사찰에 있어야 했지만 모씨는 매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풍호방을 정리하여 새사람을 맞이하였고, 고향음식을 대접하였다. 장개석은 모씨와 이후에도 몰래 만났는데, 매일 아침 송미령이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이용하여 풍호방을 돌다가 모복매를 만난 후 악정으로 돌아왔다. 이 때 모복매는 장개석에게 매번 한 가지 요청을 하였다. 그것은 바로 아들 경국이의 빠른 귀향이었다.

1936년 12월,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안사변이 발발하였다. 이 계기로 전면적인 내전이 끝나고 국공양당은 제2차 협력을 시작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담판 지었다. 국공의 노력으로 스탈린은 12년 동안 소련에 있던 장경국이 귀향하도록 해주었다. 장개석은 이 소식을 모복매에게 전하였고, 모씨는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장경국은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계구로 돌아가 얼마동안 모복매와 함께 살았고 이는 모씨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일본군은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범하였고, 전쟁은 계구에까지 그 영향을 뻗친다. 1939년 12월 12일 모씨는 일본 비행기가 던진 폭탄에 맞아 죽게 되었다.

1948년, 장 씨는 족보를 수정해야 했고 다시 한 번 귀찮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모 씨와 송 씨 두 사람을 어떻게 족보에 올릴 것인가? 고민 끝에 두 아들을

송미령 이름 하에 두고 송미령 소생으로 기록 되도록 하였다. 모복때는 왕채옥의 수양딸로 장개석의 의형제가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장경국은 묵인하였고, 장위국은 모씨 소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말이 없었다.

2) 첩 요야성과의 이혼

1911년 장개석은 상해에서 요야성을 만나게 되었다. 장개석과 요야성의 결합을 1927년 10월 18일 천진(天津) <익세보 《益世報》>에서 이처럼 보도하였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기녀였다. 남북화의당시, 장개석이 진기미(陳其美)를 따라 상해에서 거주하였고, 진기미가 북리(北里)로 가면, 장 씨 역시 함께 하였다. 프랑스 조계지에서 기녀로 있을 때 기녀 방에서 장 씨를 만나면 각별히 그를 맞이하였고, 장 씨는 그녀를 첩으로 받아들였다.

장개석과 요야성이 부부가 된 후 상해 프랑스 조계지 포석로(蒲石路) 13호 신혼 방은 장개석의 비밀 숙소가 되었다.

장개석과 요야성이 함께 하고 다음 해에, 요 씨는 봉화 계구로 보내져, 장개석의 부인 모씨와 함께 풍호방에서 살게 되었다. 모복때는 넓은 아량으로 대하였고, 요 씨는 타고난 영리함을 발휘해 시어머니 왕채옥에게 효도하고, 모복때를 형님으로 모셨다. 또한,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않아 집안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장개석은 호주사범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진지견(陳志堅)을 가정교사로 초빙해 요 씨에게 문화와 글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당시 장개석은 아직 출세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방 두 칸의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요 씨는 장 씨의 모친인 왕채옥과 함께 뒷방에서 지냈고 진지견과 모 씨가 한 방을 썼다. 모 씨와 진지견은 원래 동급생이었으므로 서로 잘 지냈다.

요야성과 장개석은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후에 장개석은 상해에서 장위국을 입양하게 되었다. 1919년 장위국이 4살이었을 때, 봉화 계구로 데려와 요야성에게 키우도록 하였다.

장개석은 두 명의 아들 중에 영리하고 똑똑했던 장위국을 더 좋아했고 이에 대해 모 씨는 크게 불만을 가졌다. 게다가 풍호방에 식구가 늘어 비좁게 되자 장

개석은 요 씨와 위국을 봉화성내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들은 후에도 영과, 상해 등 지역으로 옮겨 다니게 되고 진지견 역시 그들을 따라다니며 가정교사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장개석과 요야성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장개석은 포악한 성격과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요야성은 기녀출신으로 오락과 도박을 가까이 하였고, 말을 거칠게 하였다. 두 사람은 자주 싸우게 되었다. 장개석의 포악한 성격은 번개와 같았고, 요 씨를 내 쫓으려고까지 하였다. 장정강(張靜江), 대계도(戴季陶)등과 같은 사람들이 위국을 생각하라며 그들을 타이르면 장개석은 고심 끝에 하는 수 없이 요야성과의 관계를 이어가곤 했다.

요야성이 장위국을 데리고 상해의 장정강(張靜江)의 별장에서 거주할 당시 장개석의 새 부인 진결여도 상해에 있었다. 장위국은 진결여를 '둘째어머니' 혹은 '진 씨 작은어머니'라고 불렀다.

장개석은 세 번째 부인 진결여를 맞이한 후, 1924년 황포군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상해를 떠나 광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 요 씨는 위국을 데리고 상해에 남게 되었는데, 장개석은 요 씨에게 더욱 철저히 소원해지고 냉담해졌다. 요야성은 때때로 장개석을 만나기 위해 잔머리를 쓰기도 했다. 그녀는 장개석이 위국을 아낀다는 것을 알고는 장위국의 사진 한 장과 위국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작성해 장개석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매우 보고 싶습니다. 만약 저에게 날개가 있다면 광주로 날아가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장개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으며 무척이나 감동하여 전보를 보내 장위국을 바로 광주로 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요야성은 당당하게 위국과 함께 장개석의 숙소에 들어갔다. 요 씨가 오면 여주인 진결여는 매우 곱고러워 했다. 장개석이 진결여에게 먼저 상해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고 요 씨는 잠시나마 광주에 남아 장위국과 함께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요 씨는 잠깐의 부인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사교 장소에는 장개석과 동석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개석이 상해에서 진결여를 데려

왔다. 요 씨는 전쟁이 일어나 하는 수 없이 봉화로 돌아가야만 했다.

1927년 장개석은 송미령과의 결혼을 위해 모복매, 요야성, 진걸여에게 이별통보를 하였다. 가족관계로 말하자면 장위국은 장개석의 아들이었고 요 씨가 데려갈 수는 없었다. 우충신(吳忠信)에게 키우도록 하여 우충신과 그의 부인 왕유인(王唯仁)이 그의 '양부모'가 되었다. 이렇게 요야성은 상해를 떠나 소주(蘇州)에 살게 되지만 여전히 장위국과 함께 생활하였다. 생활비는 장개석이 부담하였다.

요 씨가 처음 소주에 있게 되었을 때, 봉황가 우충신의 저택에 있었고 후에 남은 채현방(蔡貞坊)의 택지를 찾아 새 집을 짓게 되었다. 1929년 새 집이 완성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곳을 장공관이라 불렀다.

채현방(蔡貞坊)은 십전가(十全街) 남단의 한 작은 골목에 '채현방'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이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다. 장공관은 채현방의 7번째 문패로 10묘(중국식 토지면적 단위로 '10시분'을 '1시묘'로 하고 '100시묘'를 '1경'으로 함. '1시묘'는 약 666.8제곱미터임)정도 되고, 앞뒤로 2개의 대문이 있고, 앞문의 정면에는 목행교(木杏橋)가 있고, 초록빛 물이 졸졸 흐르며 시냇물 정면에는 넓은 밭이 있었다. 뒷문에는 공관의 서쪽으로 비스듬한 정면에는 작은 천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몇 채 되지 않는 집이 있었다. 요 씨 일가는 보통 이 문으로 다녔다. 대문 옆에는 조그만 문이 또 있었는데 소주 경찰들 두 명이 파견 나와 있었다. 장공관의 주 건축물은 3층으로 되어있었으며, 벽돌로 된 서양식 방으로 2층의 동쪽 서쪽 두 칸은 침실, 중간에는 객실이 있었다. 요 씨와 장위국 그리고 그 친척들은 모두 2층에 있었고, 아래층의 동쪽 방은 서재 겸 중요한 귀빈들을 모시는 휴식공간이었고 서쪽은 서양식 식당과 식료품 저장실이였다. 3층은 비교적 천장이 낮아 물품을 놓는 곳으로 쓰였다. 주 건물의 북쪽에는 다른 동으로 통하는 하늘 다리가 있었고 건물의 위에는 하녀들이 사용하였고, 아래는 주방과 중식당으로 쓰였다. 건물의 동쪽은 수도물을 공급하는 탑이 있었고 물탱크 동쪽에 3개의 단층집이 있었는데 이는 요 씨가 불공을 드리는 곳이었다. 주 건물 주변에는 3개의 크고 작은 연꽃들이 있는 연못이 있었고, 몇 개의 정자와 화원에 나무와 꽃이 심겨져 있었다.

장공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요 씨와 위국 모자 두 사람을 제외하고 요야성의 조카 요금화가 장위국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있었고 그리고 가정교사 진

지견이 있었다.

요야성이 소주에서 살 때에는 그나마 장개석과 몇 번 서신을 주고받거나 만나기는 했었다. 하지만 그때도 역시 함께 살지는 않았다. 때때로 장개석이 소주를 가게 되면 요 씨는 위국을 데리고 기차역으로 장개석을 마중 나가기도 하였다. 1937년 장경국이 처를 데리고 러시아에서 돌아와 봉화고향으로 돌아오자 요 씨는 위국을 데리고 계구로 가 가족들과 함께 하였다. 요 씨는 문맹이었지만 진지견을 통해 교육을 받았고 곧 불경과 서신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쓰기는 그리 잘하지 못했다. 요야성은 장개석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장위국에게 부탁했다.

항전 발발 후 요야성은 장위국을 데리고 장개석이 있는 중경으로 갔고 남은천(南溫泉)에서 살았다. 장개석은 위국이 보고 싶다는 핑계로 두 모자와 자주 만났다. 1945년 항전 승리 후 요야성은 다시 한 번 소주 남원으로 돌아가 거주하였다. 그때 장위국은 국민당 부대에서 복무하며 요금과 상해에서 일하였다. 요 씨의 생활은 둘째 조카 요각화(姚覺和)가 돌보아 주었다.

요야성은 장개석을 만나지 10년도 안 되어서 버림받았고 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유일하게 그녀를 위로해 준 것은 양자 장위국이었다. 그녀는 위국을 자신이 낳았다고 생각했고 정성스레 키웠다. 그래서 그런지 장위국과 양모의 사이는 매우 돈독했으며 그 또한, 효를 다했다.

1949년 국민당이 대만으로 물러난 후 요야성은 장위국의 배려로 대만으로 갈 수 있었고, 요야성의 조카 요각화와 조카며느리 왕계보(王桂寶)가 동행하였다. 요야성은 대만에 온 후 도원대진 섬유공장 부근에서 살았으며 그녀의 사돈 석봉상(石風翔)의 이웃이 되었다. 석정의(石靜宜)가 난산으로 죽은 후 요 씨는 대중(台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장위국의 재혼 후, 청천강기지에서 살며 요 씨와 서로 가까이 살며 요야성을 돌보았다. 요야성은 1966년 사망하였다.

장개석과 송미령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요야성의 장례는 장위국이 비밀스럽게 거행했고 대외에도 엄격하게 그 소식을 차단했다. 1990년까지 장개석과 장경국이 모두 죽은 후 장위국은 대북(臺北) 선도사(善導寺)에서 요야성의 백세기념추도회를 주최하였다. 공개적으로 장개석의 둘째 부인이자 장위국의 양모 요야성을 기

넘한 것이었으며 이는 국민당 집권 역사상 이례적인 일로 각계의 관심을 받았다. 대만의 여론은 송미령이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고 인정을 고려하여 묵인하였다고 말하였다.

3) 진결여의 출국

진결여는 모복때, 요야성 다음으로 장개석의 세 번째 부인이었고 1921년 장개석을 만나 1927년 버림을 받게 되었다. 진결여와 장개석의 인연은 7년이 전부였다.

진결여의 본명은 진풍(陳風)이며, 1906년, 절강성(浙江) 진해(鎮海)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상해로 와 서장로(西藏路) 33호에 살게 되었다. 진결여는 나이 13살에 큰 키와 풍만한 몸매로 성숙한 미모를 뽐냈다. 진결여에게 한눈에 반한 장개석은 끊임없이 그녀를 쫓아다녔고, 1921년 12월 5일 상해 영안(永安)건물 대동(大東)여관의 대연회장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주례는 장정강(張靜江), 사회는 대계도(戴季陶)였으며 혼인변호사는 강일평(江一平)이었다. 정혼할 때, 장개석은 진풍의 이름을 진결여로 바꾸도록 하였고 이는 순결하다는 의미가 있었다. 당시 장개석은 34살이었고 진결여는 15살이었다.

장개석과 진결여의 신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손중산의 전보가 왔고 장개석은 가족을 데리고 광주로 내려가야 했다. 이때부터 1927년 초까지 장개석이 광둥 고위장교와 황포군교 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혁명군 총사령으로 지낼 때까지 진결여는 계속해서 장개석의 수발을 들며 함께 생활했다. 진결여는 중등교육을 받았고 중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했으며, 여러 방면에서의 사교활동을 즐겼고, 처세가 좋아 장개석 역시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장개석과 그녀는 많은 정치적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부부의 정도 더욱 돈독히 다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장개석은 진결여와의 결혼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던 1922년, 마음이 바뀌어 송미령을 흠모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장개석은 진결여를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껏해야 그의 감정에 있어 예쁜 거품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고, 그 거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었다.

1926년 말부터 1927년 초, 국민당의 수도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남창(南昌)의 북벌군총사령부와 한구(漢口) 국민당중앙 간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장개석은 송미령과의 혼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구강(九江)에서 장개석이 처음으로 진결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장개석은 진결여에게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였고, 송미령에게 5년 정도만 부인의 자리를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중국 통일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장개석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진결여와의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진결여는 경악하고 분노하여 장개석을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1927년 8월 장개석이 처음으로 하야하여 정치권에서 물러났다. 하야 전날 밤, 장개석은 진결여의 상해집을 찾아와 진결여와 그의 모친 오(吳)씨에게 진결여의 출국을 요구하며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지금부터 5년 안에 결여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만약 이 맹세를 위반하여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 나를 죽이고 나의 남경 정부를 박살내실 겁니다. 또한 10년 혹은 20년 안으로 제가 그녀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나의 정부를 퇴출시키고 나를 중국 밖으로 추방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진결여는 장개석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랫동안 계획해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계획을 믿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에 동의하였다.

1927년 8월 19일 장개석이 두월생(杜月笙)에게 진결여의 출국을 알아보게 하였고, 떠나기 전에 진결여에게 10만 위안의 여행경비를 주었다. 드넓은 태평양 항해 중에 진결여는 무선전보에서 '장중정(장개석) 집안 사 공고'를 듣게 되었다. 그제야, 진결여는 장개석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비통했고, 몇 번이나 바다에 빠져 죽으려 하였지만, 호송요원들의 만류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개석은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고, 또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장개석이 했던 '진결여와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며, '진 씨와는 이미 결별한 사이'라는 것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았다. 진결여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장개석은 단 한 번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송미령과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난 1928년 봄이 되어서야 강일평 변호사를 진결여에게 보내 이혼조건을 전달하게 하였고, 진결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장개석과의 결별에 동의해야만 했으며 이로써 공식적인 이혼에

들어서게 되었다. 진결여가 출국했을 때 그녀의 나이 20대 초반이었다. 비극적인 일을 겪은 그녀는 두 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5년여의 유학생생활 동안 전력을 다해 학문을 닦았고 영어와 양봉과 원예를 배웠고, 콜롬비아교육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 진결여는 상해로 돌아왔다. 양녀 요광(瑤光)은 장과 진(陳)이 이혼하자 모친의 성 씨인 진(陳)씨로 바꾸고, 진결여와 함께 생활하였다. 상해에 있는 동안 진결여는 문을 닫고 방문객을 사절하며 은거 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장개석에게 몇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장개석은 회답해 주지 않았으며 단지 몇 만 위안의 돈만 보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장경국과는 가족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1937년 장경국이 소련에서 돌아온 후 부인 장방량(蔣方良)과 함께 상해로가 그녀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후 장경국은 강서 및 상해 등 지역에서 일하며 진결여와 자주 만났다.

1937년 칠칠사변 이후 항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가 함락되었고 조계지가 고립되었다. 프랑스 조계지 파리신촌(巴黎新村)(지금의 중경남로(重慶南路)169농8호)에 은거하던 진결여는 더욱 신중하게 집에만 틀어박혀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았다. 1941년 12월 중순 어느 날 진결여가 외출하여 물건을 사고 있는데 왕정위의 부인 진벽군(陳璧君)이 그녀를 알아보게 되었다. 진벽군(陳璧君)은 광주에서 진결여와 매우 친했던 사이로 그녀 역시 장개석과 진결여의 '비극적인 사연'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그녀는 진결여가 공개 장소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장개석에게 버림받은 것을 복수하며 나라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고 왕위정부의 교무위원회부주석으로 참석하길 바랐다. 진결여는 민족 대의를 중요시하여 개인의 원한과는 상관없다며 완곡히 이를 거절하였다. 진벽군(陳璧君)의 집요한 요청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몰래 상해를 떠나 제3교전지의 사령장관인 고축동(顧祝同)의 안내에 따라 중경으로 건너갔다.

진결여는 육군대학 장개석 관저에서 멀지 않은 오충신(吳忠信)공관에 비밀리에 묵게 되었다. 장개석은 정권복귀 이후 오공관에서 진 씨와 자주 밀회를 했다. 행적은 매우 은밀했지만, 결국 송미령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녀는 질투를 참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게 되었다.

항전승리 후 진결여는 상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1946년 양녀 진요광과 국민당 제 3방면 군소장참의 육구지(陸久之)가 결혼을 하였다. 진결여는 육구지에

게 선물로 금으로 된 회중시계를 선물하였다. 시계에는 '장개석총사령관 드림'이라고 쓰여 있었고, 서명에는 '포라정(鮑羅廷)증정'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진결여가 오랫동안 소장하고 있던 물건이었다.

1949년 국민당이 후퇴하여 대만으로 옮긴 후, 진결여는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위 육구지의 도움으로 상해에 남게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진결여의 현명한 선택으로 상해시 인민정부의 존경과 환영을 받았고 그녀는 상해시 로만구(盧灣區)정협위원으로 추천되어 매월 200위안의 생활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20세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까지 정치와 경제의 정세가 나날이 악화되어 진결여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고, 홍콩이주를 요구했다.

1961년 12월 7일, 진결여는 중공중앙통전부의 초청으로 북경에 가게 되었다. 12월 26일 주은래(周恩來)와 등영초(鄧穎超)가 서화(西花)홀에서 연회를 열어 진결여를 환영하였고 중공중앙통전부부장 서빙(徐冰) 및 요승지(廖承志) 부부 등과 동반하였다. 주은래는 국민혁명 시기 이미 '장교장 부인'인 진결여를 알았고, 줄곧 그녀를 존경하여 '사모님'이라 존칭하였다. 진결여는 1949년 이후 상해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주은래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주은래는 진결여가 원한다면 홍콩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고, "가고 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홍콩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주은래를 통해 진결여는 혼자서 홍콩으로 이주하며 코즈웨이베이 신시가지에서 거주하며 진옥(陳璐)으로 개명하여 은거 생활을 하였다. 평일에는 심심풀이로 마작을 하였고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가 홍콩에서 알게 된 친구들도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녀가 바로 북벌시기 그 유명한 '장개석총사령관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진결여가 홍콩에 온 후, 장개석과 장경국은 그녀에게 10만 달러의 거금을 주었고 진결여는 이것으로 구룡(九龍)의 태자(太子) 길에 있는 큰 건물을 사게 되었다. 하지만 진결여는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어 나오는 돈으로 사는 집의 월세를 내며 살았다. 장씨 부자는 대계도의 아들 대안국(戴安國)을 통해 매월 500달러를 그녀에게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그녀에게 사람을 한 명 붙여 놓았다. 이는 '보호'이기도 하였고, '감시'이기도 하였다. 1962년 장개석이 대안국을 통해 진결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전달하였다. 편지에는 당신은 항상 선량했던 사

람이라는 말과 함께 지난 풍파를 함께 하며 느꼈던 감정들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그가 진결여에게 준 일생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

진결여는 홍콩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지내다가 병까지 얻게 되었다. 이로 보아 정신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71년 2월 11일 한 친구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방문하였다.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사람을 불러 문을 열게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바닥에 누워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있었다. 그녀의 나이 65세였다. 주은래는 진결여가 홍콩에서 별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결여의 양녀 진요광에게 홍콩으로 가 장례를 치르게 하였고 후사를 돌보도록 하였다.